

文學碩士 學位論文

新羅 文樣塼의 研究

-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

慶州大學校 大學院

文化財學科

金 秀 姬

2009年 12月

新羅 文樣塼의 研究

-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

指導教授 姜 奉 遠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9年 12月

慶州大學校 大學院

文 化 財 學 科

金 秀 姬

金秀姬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 查 委 員 _____ 印

審 查 委 員 _____ 印

慶州大學校 大學院

2009年 12月

< 목 차 >

I. 서론.....	1
1. 연구사 검토.....	2
2. 연구 목적.....	4
II. 전(塹)의 범주.....	5
III. 경주 출토 문양전의 형식.....	8
1. 경주 출토 문양전의 현황.....	8
2. 기준 속성.....	27
3. 형식 분류.....	28
VI. 경주 출토 문양전의 변천과정.....	48
V. 결론.....	53
참고문헌.....	55
Abstract.....	59

<표 목차>

표1. 塙의 분류.....	6
표2. 塙의 출토 현황 및 보고 현황.....	9
표3. 황룡사지 회랑지 출토 문양전의 보고 현황.....	10
표4. 분황사 출토 문양전의 보고 현황.....	13
표5. 월성 출토 문양전의 보고 현황.....	16
표6. 안압지 출토 문양전의 보고 현황.....	18
표7. 北門路 王京遺蹟 출토 문양전의 보고 현황 (2003, 2007).....	22
표8. 통일신라시대 연화문전 분류표.....	37
표9. 연화문전 크기 비교.....	39
표10. 통일신라시대 보상화문전 측면 문양 비교.....	42
표11. 장방형 보상화문전 크기 분석.....	43
표12. 정방형 보상화문전 크기 분석.....	44
표13. 宋代 전의 사용처.....	45
표14. 범을 사용한 문양전의 시문기법 변천추이.....	48
표15. 수막새범을 사용한 문양전의 속성.....	49
표16. 전범을 사용한 문양전의 속성.....	50
표17. 통일신라시대 전범을 사용한 문양전의 상면 문양 비교.....	51

<삽도 목차>

삽도1. 황룡사 강당지 출토 전.....	7
삽도2. 사천왕사지 출토 전.....	7
삽도3. 경주 출토 문양전 현황.....	8
삽도4. 황룡사 회랑지 출토 문양전.....	11
삽도5. 전 홍룡사지 출토 문양전.....	12
삽도6. 분황사 출토 문양전.....	13
삽도7. 분황사 동회랑지 출토 연화문전.....	14
삽도8. 구황동 원지 출토 연화문전.....	15

삽도9. 월성 출토 문양전.....	16
삽도10. 첨성대 남편 출토 문양전.....	17
삽도11. 안압지 출토 문양전.....	18
삽도12. 망성리 와요지 출토 보상화문전 비교.....	19
삽도13. 하구리 와요지 출토 보상화문전 비교.....	20
삽도14. 하구리 와요지 출토 연화문전.....	21
삽도15. 동천동 681-1번지 일대 유적 출토 문양전.....	21
삽도16. 성건동 172-2번지 출토 문양전.....	22
삽도17. 경주 북문로 왕경유적 출토 문양전.....	23
삽도18. 경주 북문로 왕경유적 출토 문양전.....	23
삽도19. 사천왕사지 출토 문양전.....	24
삽도20. 사천왕사지 북서편 가마터 출토 문양전.....	25
삽도21. 계림남편 출토 문양전.....	26
삽도22. 경주 화곡지구 출토 문양전.....	26
삽도23. 직접 시문하는 방법.....	27
삽도24. 범의 종류.....	28
삽도25. 연화문전과 연화문 수막새 비교.....	29
삽도26. 연화문전과 연화문 수막새 비교.....	30
삽도27. 연화문전과 연화문 수막새 비교.....	30
삽도28. 수막새범.....	31
삽도29. 연화문전과 연화문 수막새 비교.....	32
삽도30. 연화문전과 연화문 수막새 비교.....	33
삽도31. 부여 외리 출토 문양전.....	34
삽도32. 백제와 신라의 대금구 비교.....	35
삽도33. 대금구 모양 비교.....	35
삽도34. 경주 출토 연화문전 현황.....	36
삽도35. 경주 출토 보상화문전 현황.....	40
삽도36. 보상화문전 측면 문양 비교.....	41
삽도37. 보상화문전.....	43
삽도38. 보상화문전.....	43
삽도39. 보상화문전.....	44

삽도40. 宋代 전의 종류 및 크기.....	46
삽도41. 통일신라시대 문양전의 종류 및 크기.....	47
삽도42. 시대별 수막새범을 사용한 문양전의 종류.....	49
삽도43. 통일신라시대 문양전의 종류.....	52

I. 서론

우리나라 전(塼)은 중국 한사군의 설치에 따른 영향을 받아 전래되어 삼국 시대부터 주로 제작·사용되었다.

초기의 전은 고구려의 국내성 도읍기와 백제의 한성 도읍기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지만 묘전(墓塼)과 약간의 부전(敷塼)에 지나지 않는다. 한반도에 전이 처음 들어온 시기는 한사군이 설치된 기원전 2~1세기경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와 제작술의 파급과 함께 우리나라 건축 문화와 주거 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¹⁾

삼국시대 부전으로 사용된 문양전의 연구 성과는 전무한 상태이지만, 출토 유물을 통해 당시의 조전 기술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서는 고구려와 백제 전의 제작 기술을 흡수하여 화려한 전 문화를 꽃피우게 된다.

통일신라시대의 월성과 안압지 등의 궁성 유적과 사천왕사지를 비롯하여 감은사, 망덕사 등의 사찰 유적이 조영되면서 전의 제작이 대량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출토 유물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그 대표적인 예로 조로 2년명(調露二年名) 쌍록보상화문전이나 황룡사지 출토 문양전은 당시의 조전술을 보여준다. 통일신라시대 전의 조전술 역시 삼국시대의 와당과 유사한 제작기법이 확인되며, 통일신라시대 조전술은 전범(塼範)의 사용과 함께 독립적인 개체로 발전하게 된다.

본 연구는 부전으로 사용된 문양전 연구를 통해 삼국시대 경주지역에서도 문양전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예부터 기와와 함께 건축 부재로 사용되었던 문양전을 연구함으로써 그 가치를 재 탐구하고 부전으로 추정되는 문양전의 변천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김성구, 『옛전돌』 빛깔있는 책들, 대원사, 1999, p.33.

1. 연구사 검토

1) 해방 이전~1960년대

한반도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연구는 일제 강점기 일본인에 의해 주로 진행되었다.

한반도 최초로 전이 수집된 것은 1883년 太王陵에서 고구려시대 문자 전이 발견되었으며, 그리고 이후 1931년 關野貞에 의해 고구려시대 유적인 千秋塚 등지에서 수집된 전이 소개되었으며, 또한 1933년에는 輕部慈恩에 의해 백제 웅진시기 공주 송산리 고분에서 명문 전이 수집되었으며, 1933년 濱田耕作은 「新羅의 書箱甁」 논문에서 신라 전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 시기 국내 연구자에 의한 연구로는 1936년, 1939년 전답에 관해 연구한 고유섭의 논문이 있다. 해방이후부터는 국내연구자에 의해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어 『감은사지』 보고서가 발간된다. 1959년 국립중앙박물관에 의해 조사된 『감은사지』 보고서에는 전이 기와 다음으로 양이 많으며, 모두 파편으로 無紋磚, 施釉磚 등이 소개되어 전 연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2) 1970년대~1980년대

1970년대와 1980년대는 전답, 사지, 가마터 등의 유적이 발굴 조사되었으며 다량의 전이 소개되었고, 전에 대한 다수의 논문과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정영고는 「신라의 전답: 통일신라시대를 중심으로」 논문에서 전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으며, 황은신의 논문에서는 시대별 문양전에 대해 소개하였다.

그리고 1975~1976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의해 안압지, 1976~1983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의해 황룡사지 발굴 조사되어 다양한 문양전이 출토 보고되었다.

井内功은 『朝鮮瓦塼圖報』를 간행하여 일본인에게 수집된 전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김성구는 『다경와요지 출토 신라와전소고』에서 다경와요지 출토 전의 편년과 수급 생산 관계에 대해 논하였으며, 김성구의 『통일신라시대의 와전』에서는 문양전의 양식적인 변화와 특성 및 용도를 논하였다.

박홍국은 『三國末 ~統一初期 新羅瓦塼에 대한 一考察 -月星郡 內南面 望星里 瓦窯址와 出土瓦塼을 중심으로-』에서 와전의 종류와 형식을 고찰하고 편년을 시도하였다.

3) 1990년대~현재

1990년대부터는 瓦·塼에 관한 도록과 간행물들이 출간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전탑 연구가 성행한다. 천득염은 『전탑』에서 조탑에 사용된 전의 형태와 특징을 논하였으며, 박홍국은 『한국 전탑의 연구』에서 전탑의 분포 상황 및 조성시기에 대해 논하였다.

그리고 김성구는 『옛전돌』에서 전의 시대별 유형과 전의 특성과 편년, 가마터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2000년대에 이르면서 각 학회 및 기관에서 다양한 유물을 전시하고 및 도록도 간행하여 전에 관한 자료가 풍부해진다.

2000년 국립경주박물관에 의해 『新羅瓦塼』이 간행되어 각 시대별, 유적별로 瓦·塼에 관한 내용이 소개되며, 박홍국은 「瓦塼資料를 통한 靈廟寺址와 興輪寺址의 位置 比定」에서 瓦·塼의 태토 분석을 통해 용도별 수량 분류표를 작성하였다. 高正龍은 「新羅文樣塼의 製作技法」에서 문양전의 제작 기법과 제작에 사용된 틀, 도구들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유홍도는 『통일신라시대 전돌 연구』에서 통일신라시대 전의 분류, 유형, 제작기법에 관해 논하였다.

2. 연구 목적

전(塼)의 연구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에 대한 연구는 해방이전시기에는 일본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전에 대한 간략한 소개로 시작되었다. 그 후 문양전에 시문된 문양의 도상과 관련하여 불교사학자들에 의해 불교 미술사에 포함되어 문양적 도상 연구가 진행되었다.

1980년대부터 본격적인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양의 전이 출토되었고 풍부한 자료가 확보되었다. 그러나 전 그 자체에 대한 시대 변천 연구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도되지 않은 상태이다. 아울러 전의 역사에서 최고의 제작 기술을 발휘했던 통일신라시대의 전의 시문기법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미흡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학문적 현실이다.

본 연구는 옛부터 기와와 함께 건축 부재로 사용된 전을 연구함으로써 그 가치를 재 탐구하고자 한다.

전 중에서도 다채로운 문양이 새겨진 문양전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문양전의 제작기법 중에서도 시문기법을 분석하여 그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첫째, 전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둘째, 경주 출토 전의 분류를 통해 전의 출토현황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셋째, 전의 시문기법을 통하여 시대별 전의 특징을 파악할 것이며 삼국시대 경주지역에서도 문양전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문양적 특징을 통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넷째, 문양전 문양의 흐름과 문양의 배치를 통해 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섯째, 문양전이 사용된 사용처를 추정하고자 한다. 여섯째, 건축 부재의 하나인 전에서 보이는 수막새의 문양적 특성을 통해 瓦·塼 연구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II. 전(敷塼)의 범주

전(塼)은 점토를 성형되어 가마 속에서 높은 온도로 구워 만든 건축 용재이다. 또한 건축 재료인 목재와 석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단점과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다.

전(塼, 磚, 甃, 甃)은 흔히 전벽돌(塼甃) 또는 벽돌(甃, 壁甃)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요즘의 블록과 같이 건물의 벽체를 쌓거나 보도용으로 주로 쓰이는데 반해, 고대 전은 무덤이나 지상 건조물의 축조에 사용되어 그 전통이나 쓰임새, 형태면에서 약간씩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돌과 벽돌이라는 말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의 벽돌은 벽(壁)과 관련이 없는 전벽(塼甃) 또는 벽(甃)을 의미하고 있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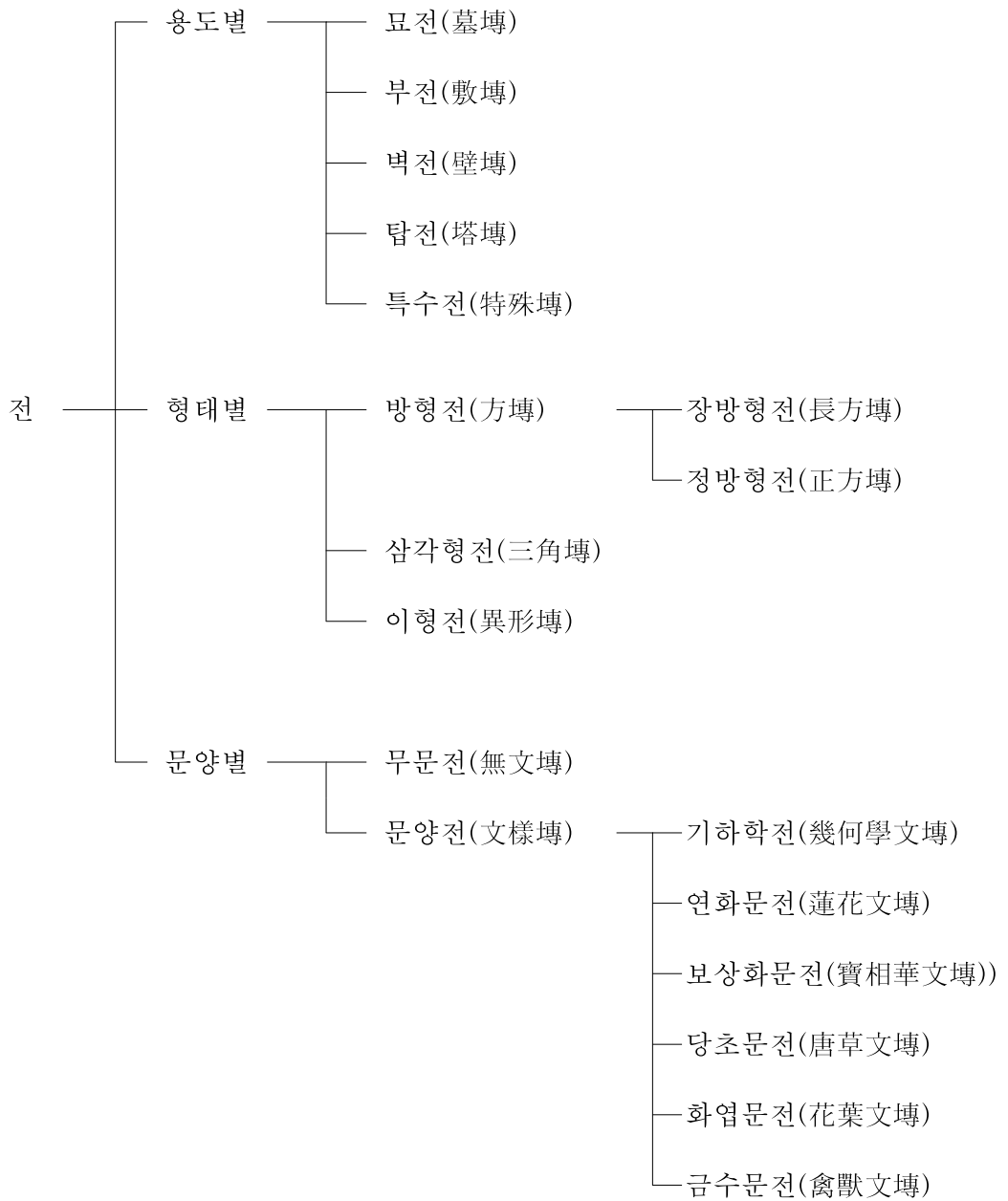
우리나라 전의 기원은 어디까지 소급될 수 있는지 아직도 추정할 수 없으나 역사시대가 시작되는 삼국시대부터 전이 제작·사용되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로는 太王陵과 千秋塚에서 발견된 고구려 시대의 문자전과 문양전이 있다. 이러한 전은 대부분 벽전이다.

전은 용도에(표1) 따라 분묘를 축조하기 위한 묘전(墓塼)과 전답을 쌓기 위한 탑전(塔塼), 건물 내외의 바닥과 하단 등에 까는 부전(敷塼)으로 구분되며, 그 형태에 따라 방형전, 삼각전, 능형전(陵形塼), 이형전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문양의 유무에 따라 무문전과 문양전로 나뉘기도 하며, 글씨가 새겨진 명문전도 있다. 문양전은 다시 시문단위에 따라 연화문전, 보상화문전, 당초문전 등으로 세분되며 이외에도 봉황무늬, 수렵무늬, 구름무늬, 귀면무늬 등이 다채롭게 채용된다.

전은 문양의 유무에 따라 무문전과 문양전으로 나눌 수 있으며, 무문전과 문양전은 모양에 따라 다시 장방형과 정방형, 이형형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문양전은 시문 단위에 따라 보상화문, 연화문, 당초문, 봉황, 사슴 등 다양한 문양을 보여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 중에서도 문양이 있는 문양전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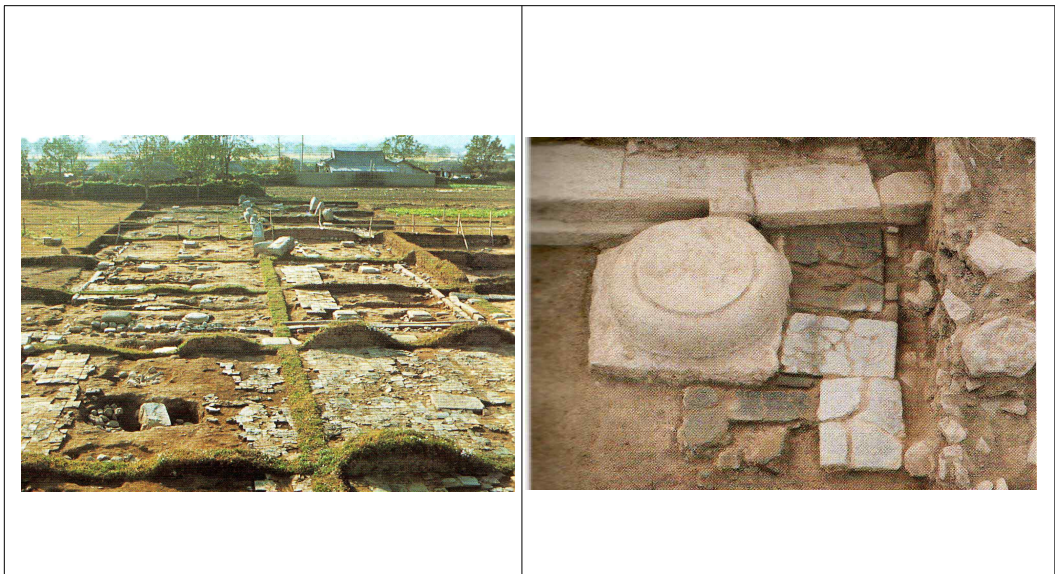
2) 김성구, 『옛전돌』 빛깔있는 책들, 대원사, 1999, p.7.

<표1. 塼의 분류>



전은 자연 건조시킨 날전돌과 불에 구워낸 소성전돌로 구분할 수 있다. 날전돌은 점토를 성형된 뒤 햇빛이나 그늘에서 말린 것으로 세계 각지에서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왔다.

전(塼)은 지상 건축물의 실내·외 바닥이나 기단에 주로 사용된다.³⁾ 삼국삼국시대부터 제작되기 시작하여 궁성터, 사찰에서 상당량이 출토되고 있다. 통일신라시대에는 많은 사찰과 궁성의 축조로 전이 대량으로 생산되었으며, 문양도 다양해지고 화려해졌다.(삽도 1, 2)



삽도 1. 황룡사 강당지 출토 전.⁴⁾

삽도 2. 사천왕사지 출토 전.⁵⁾

문양전의 경우 경주지역에서 다량 출토되지만 연구 성과가 미비하며 편년 설정이 어렵다. 본 논문은 삼국시대 경주지역에서도 문양전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통일신라시대 문양전의 문양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에 시문된 문양의 변화가 보인다면 이것은 전의 제작기법의 변화와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3) 김성구, 『옛전돌』 빗갈있는 책들, 대원사, 1999, p.21.

4) 김성구, 『옛전돌』 빗갈있는 책들, 대원사, 1999, p.601.

5) 사천왕사지 안내 책자를 인용하였다.

Ⅲ. 경주 출토 문양전의 형식

1. 경주 출토 문양전의 현황

일제시대 일본 연구자 의한 조사와 함께 1970년대 ~ 1980년대의 궁성, 사찰, 가마터 등의 본격적인 유적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다량의 전이 출토되었다. 현재 경주 지역은 여러 발굴기관의 시·발굴 조사에 의해 다량의 전이 출토, 보고되고 있다.



삽도3. 경주 출토 문양전 현황.

<표2. 塙의 출토 현황 및 보고 현황>

출토지	출토 현황	전의 보고 현황			비고
		무문전	문양전		
			부전	기타	
황룡사지	?	?	12(166)점	-	황룡사 보고서 기준(와전류 9765점이 보고되었으나 회랑지 출토 문양전만 보고됨)
홍륜사지	?	10점	1점	-	
분황사	40점	26점	13점	1점	분황사 보고서 기준
구황동 원지	439점	37점(216)	19점(223점)	-	구황동 원지 보고서 기준
월성	?	9점	64점	2점	월성 보고서 기준
첨성대 남편	19점	14점	5점	-	월성 보고서 기준
안압지	?	- (911점)	24점(407점)	23점(237점)	안압지 보고서 기준
망성리 와요지	?	?	1점	-	
하구리 와요지	?	?	2점	-	
동천동 681-1번 지 일대 유적	?	?	2점	-	보고서 미발간
성건동 172-2번 지	?	?	1점	-	와전류 24점 보고됨
慶州 北門路 王 京遺蹟	?	2점	2점	-	와전류 498점 보고됨
사천왕사지	?	?	11점	-	경주대학교박물관 소장기 준
사천왕사지 북 서편 가마터	?	?	4점	-	경주대학교박물관 소장기 준
계림남편	4점	-	4점	-	월성 보고서 기준
경주화곡지구	?	?	1점	-	지도위원회 자료 기준, 보 고서미발간
합계	?	?	166점(796점)	26점(237점)	

*(?표시는 정확한 출토량을 알 수 없음을 의미함)

1) 황룡사지

경주시 구황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삼국유사』에 따르면 황룡사는 진흥왕(眞興王) 14년(553)에 새 궁궐을 지으려다 황룡이 나타나는 바람에 계획을 바꾸어 절을 지은 것이라 한다. 절이 완성된 것은 진흥왕 30년(569)이었다. 이때의 가람 배치는 중심부의 당탑(堂塔)을 당탑의 좌우와 남북으로 동·서·남 회랑(回廊)을 배치한 형태였다. 574년에는 신라 삼보의 하나인 황룡사 장유존상이 만들어지고, 선덕여왕(善德女王)때에는 당나라에서 유학하고 온 자장(慈藏)의 권유로 황룡사 9층 목탑이 세워졌다. 황룡사는 여러 차례 보수가 계속되다가 고려(1238년) 고종(高宗) 25년 몽고군의 침략으로 완전히 소실되었다.

황룡사는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慶州觀光綜合開發計劃)의 일환으로 경주고적발굴조사단(慶州古蹟發掘調査團)에 의해 1976년부터 1983년까지 8次년도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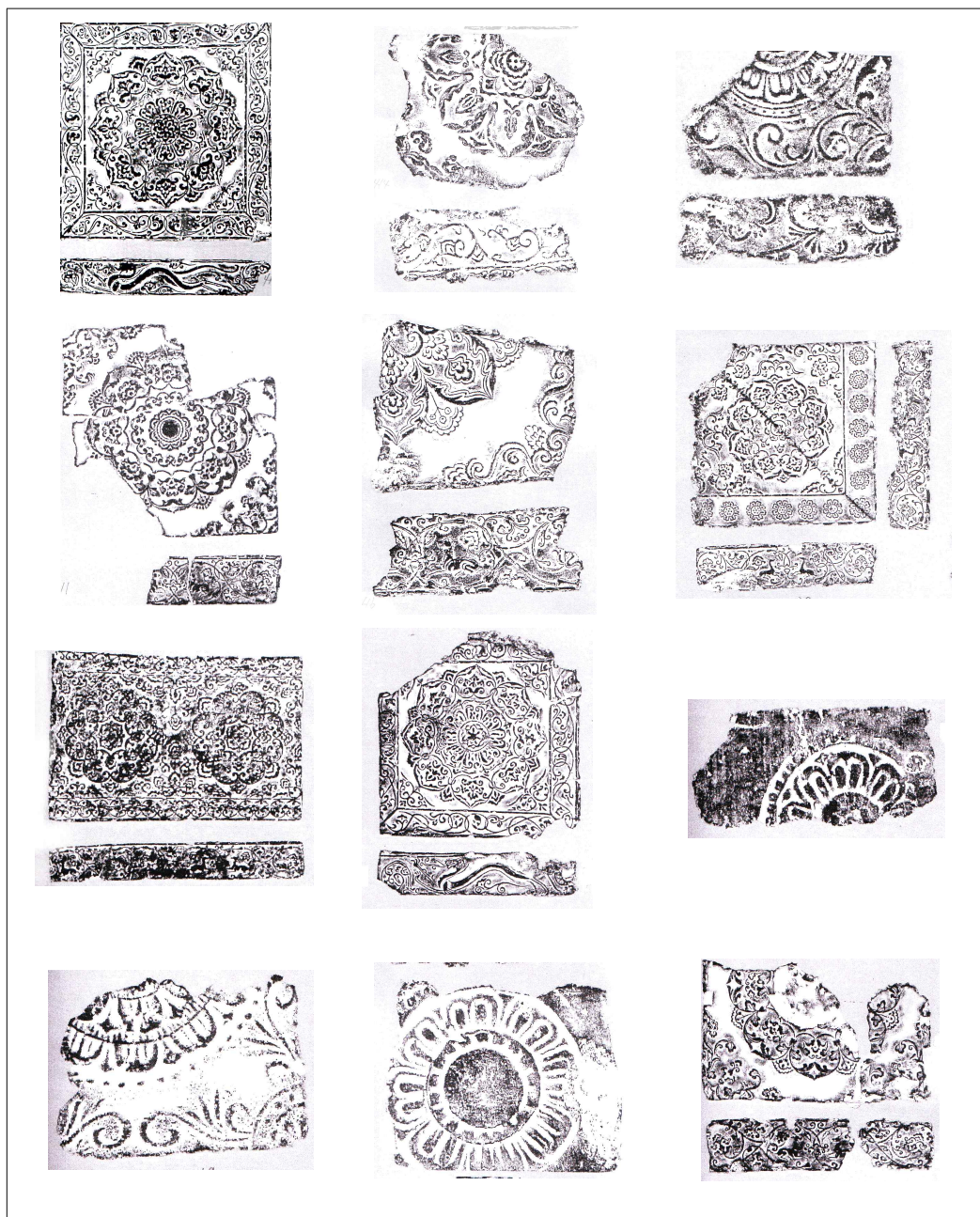
출토 유물은 크게 와전류, 토기류, 금속 유물, 옥제품, 토제품 등이 출토되었다. 그 중 와전류는 총 9,765점이 출토되어 보고되고 있다. 황룡사 출토 전의 경우 강당지와 동금당지 지역에서 많은 양이 전이 출토되었다. 그러나 수량이 많은 점과 정리 부족으로 보고서에는 무문전의 수량은 보고되어 있지 않으며, 회랑지에서 출토된 문양전 166점 중 12점만 보고되었다.⁶⁾(삼도4)

표3. 황룡사지 회랑지 출토 문양전의 보고 현황.⁷⁾

문양전 12점(166)점	
보상화문전	연화문전
8점	4점

6)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皇龍寺』發掘報告書, 1984.

7)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皇龍寺』發掘報告書, 1984.자료를 참고함. 표에 제시된 부전의 보고 현황은 보고서에 보고된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문양전을 중심으로 조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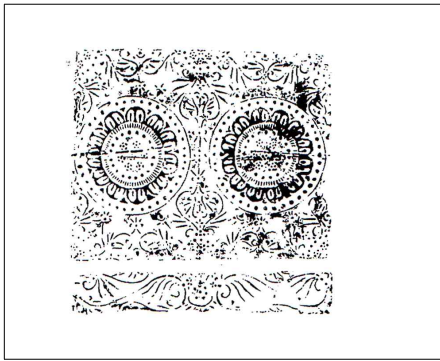
삽도4. 황룡사 회랑지 출토 문양전.⁸⁾

8)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皇龍寺』發掘報告書, 1984.

2) 전 홍륜사지

신라 최초의 가람(伽藍)으로 현재 경주공업고등학교 부지를 사지(寺址)로 추정하기도 하고, 인면문수막새가 출토된 사정동의 절터를 홍륜사지로 추정하기도 한다. 『삼국유사』에는 눌지왕(訥祗王) 때 승려 아도(阿道)가 창건한 사찰이라는 기록이 있으나 법흥왕(法興王)이 528년 불교를 공인한 뒤 최초로 천경림(天鏡林)에 세워진 절로서 진흥왕(眞興王) 때인 544년에 완공되었다. 진흥왕은 이 절을 대왕홍륜사라 하였고, 만년에 홍륜사의 주지가 되었다. 이 후 홍륜사는 대법회를 주관하는 도량이 되었고 왕실과 국가의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비는 도량이 되었다.⁹⁾

최근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에서 경주공업고등학교 담장과 인접한 약 84평에 대한 발굴조사가 실시한 결과 토기류, 금속류, 와전류 등이 출토되었다. 전의 경우 발굴조사에서 무문전 10점이 보고되었으며¹⁰⁾, 문양전의 경우 『慶州 九黃洞 皇龍寺址展示館 建立敷地内 遺蹟』 보고서에 홍륜사지 출토 연화문전이 1점 소개되어 있다 (삽도5).



삽도5. 전 홍륜사지 출토 문양전.¹¹⁾

9) 강우방, 『新羅瓦磚』, 국립경주 박물관, 2000, p.114.

10)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경주시 사정동 459-9번지』 수습발굴보고서, 2001, pp.135~136의 내용을 참조함.

11) 문양전은 경주문화재 연구소, 『慶州 九黃洞 皇龍寺址展示館 建立敷地内 遺蹟』, 2008, p.287의 내용을 참조하였고 무문전은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경주시 사정동 459-9번지』 수습발굴보고서, 2001, pp.135~136의 내용을 참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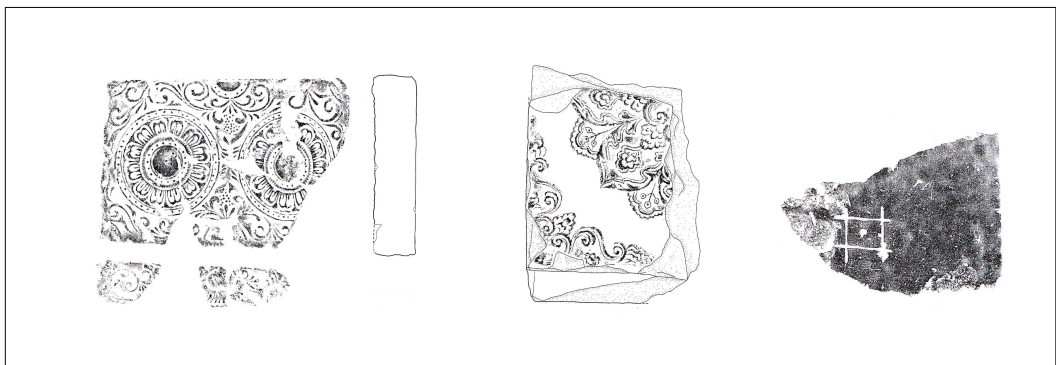
3) 분황사

경주시 구황동에 있는 사찰로 전불시대(前佛時代)의 가람터라고 전하는 칠처가람(七處伽藍)중에 하나이며 선덕여왕(善德女王) 3년(634) 용궁의 북쪽에 건립되었다. 현재는 선덕여왕3년(634)에 건립된 신라 최고의 탑인 분황사 모전 석탑(模塲石塔)과 김정희의 친필이 음각되어있는 화쟁국사비부(和諍國師碑趺)과 호국룡이 살았다고 전하는 신라시대의 우물과 초석, 석등대석 등이 남아 있다.

출토 유물은 크게 와전류, 토기류 자기류, 기타 등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그 중 와전류는 총 1062점이 출토되었다. 분황사 출토 전은 크게 문양전(표4)과 무문전으로 분류되며, 문양전은 연화문전, 보상화문전, “井”字전이 확인된다(삼도6).

표4. 분황사 출토 문양전의 보고 현황.¹²⁾

문양전 13점		
연화문전	보상화문전	“井”字전
10점	2점	1점



삼도6. 분황사 출토 문양전.

분황사 출토 연화문전은 모두 10점이 보고되었다. 그 중 7점은 동회랑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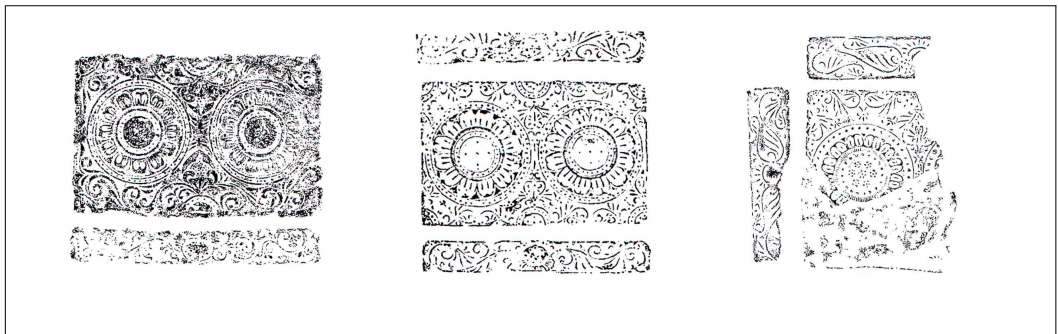
12)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分皇寺』 발굴보고서, 2005, pp.442~444 내용을 참조함.

4) 慶州 九黃洞 皇龍寺址展示館 建立敷地内 遺蹟(구황동 원지 유적)

황룡사지 전시관 설립을 위해 문화재청과 경주시의 주도로 분황사 동쪽의 농경지 일대 매입하여 조사한 결과 대형 원지 및 건물지 등의 유구가 확인되어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 의해 1999년 5월부터 2004년 3월까지 5년여에 걸쳐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구황동 원지유적은 크게 와전류, 토기류, 자기류, 금속류, 석제품 등 총 2,000여점이 출토되었으며, 그 중 와전류가 1,200여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구황동 원지 유적은 223점의 문양전이 출토되었으며 완형 또는 잔존 상태가 양호한 것은 19점만 보고되었다. 출토된 문양전은 장방형으로 12엽의 복엽 연화문이 좌우 대칭으로 시문되어있고, 그 주위로 당초문과 인동문, 반원형의 연주문이 시문된 형태이다¹⁴⁾(삽도8).



삽도8. 구황동 원지 출토 연화문전.

14)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慶州 九黃洞 皇龍寺址展示館 建立敷地内 遺蹟』九黃洞 苑池 遺蹟, 2008.

5) 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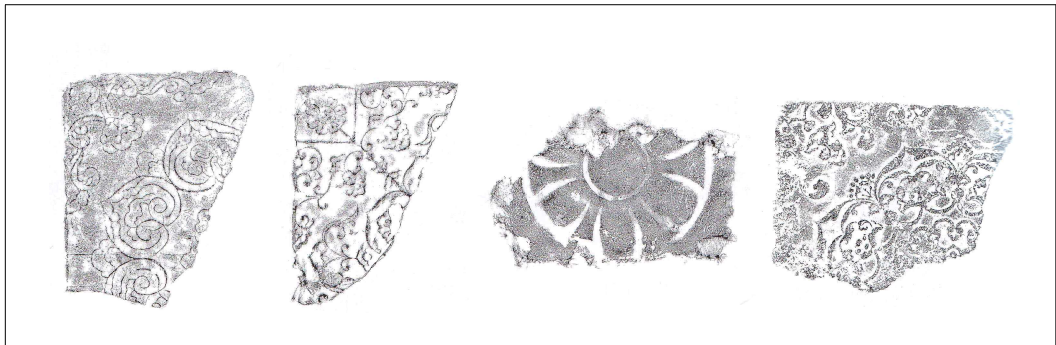
월성(月城)은 신라의 궁성지로 경주 인왕동 일대에 자리 잡고 있다. 현재 동서너비 900m, 남북너비 250m, 총 면적 55,000m여 평 정도의 면적에 50~70m너비의 성벽이 약 1,800m까지 남아있다. 월성은 전체적인 평면 형태가 남천에 의해 남편이 만곡되게 지형이 형성되어, 마치 초승달과 같으므로 월성(月城), 신월성(新月城), 왕이 거주하는 곳이라는 의미의 재성(在城) 등으로 불렸으며, 조선시대에는 반월성(半月城)으로 불렸다.¹⁵⁾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 의해 1990년, 1994년, 1995년 월성 북서편과 동편의 발굴조사 결과 해자, 주거지, 수혈, 건물지 등 다양한 유구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토기류, 와전류, 토제품, 금속유물 등이 출토되었다. 월성 출토 문양전의 경우 보상화문전과 연화문전이 확인된다(삽도9).

표5. 월성 출토 문양전의 보고 현황.¹⁶⁾

문양전 64점	
보상화문전	연화문전
63점	1점



삽도9. 월성 출토 문양전

15)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月城垓字 發掘報告書Ⅱ』, 2006.

16)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月城垓字 發掘報告書Ⅱ』, 2006. pp.170~171.

6) 침성대 남편

경주문화재연구소에 의해 계림 동편에 노출되어 있던 원형 초석에 대한 정밀조사 필요성에 따라 이곳에 대한 시굴조사가 이루어졌고, 이 후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시작되면서 1986년 일부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많은 건물지와 담장, 우물, 석교지, 목교지 등이 확인되었고, 침성대 정남편에 서는 남북 방향으로 된 석축열이 확인되었다.

출토 유물은 토기류, 토제품, 금속유물, 기와, 전 등이 출토되었으며, 전의 경우 무문전 14점, 문양전 5점, 총 19점이 보고되었다.¹⁷⁾ 문양전의 경우 보상화문전만이 확인되고 있다(삼도10).



삼도10. 침성대 남편 출토 문양전.

17)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月城核字 發掘報告書Ⅱ』,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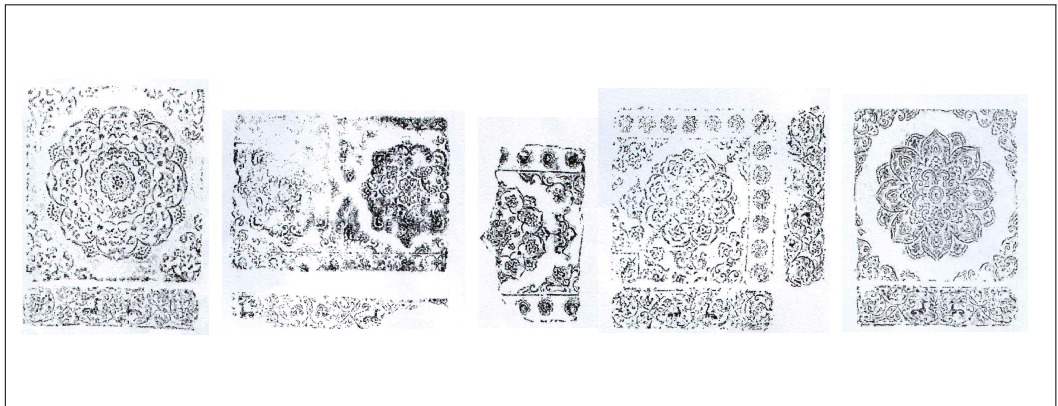
7) 안압지

경주시 인왕동에 있으며, 월성 동북쪽에 위치한다. 조선 초기 기록에 따르면 안압지로 하였으나, 『三國史記』의 기록에 따르면 신라시대에는 동궁과 월지(月池)라고 하였던 것으로 추정한다. 1975년부터의 발굴조사에서 각종 와전류, 토기류, 목간, 목선, 건축부재, 생활용구, 금동불상 및 금동제품 등 약 30,000여점이 출토 되었다. 출토 유물 중에서 ‘調露二年’ (680년)명 보상화문전은 와전의 편년 설정과 문헌에 나타나는 안압지 기록과 일치하고 있다.¹⁸⁾

문양전의 경우 보상화문전이(삼도11)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井”字가 시문된 전도 확인된다.

문양전24점(407점)	
보상화문전	‘井’字전
23점(404점)	1점(3점)

표6. 안압지 출토 문양전의 보고 현황



삼도11. 안압지 출토 문양전.

18) 문화재 관리국, 『雁鴨池』發掘報告書, 1978.

8) 망성리 와요지

망성리 와요지는 월성군 내남면 망성리에 위치하고 있다. 경부 고속도로의 경주 톨게이트 역 200m 전방에서 왼쪽 평야 지대를 가로 지르는 비포장 도로를 따라 약 4km 들어가면 江亭 부락에 이른다. 이 요지는 江亭 부락의 바로 뒷산 낮은 산비탈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왼쪽벽만 남기고 파괴된 상태이며 노출되어 있는 상태를 볼 때 지하 식요(窯)가 아니라 지상에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망성리 와요지에서 전은 그다지 많이 노출되어 있지는 않다. 이러한 현상은 요(窯)에서는 전이 퇴적되었던 지점이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무늬를 알아 볼 수 있는 파편이 3종류가 채집되었다.¹⁹⁾

망성리 와요지 출토 전은 연결되는 가장 자리에 긴 구획을 마련하고 4개의 전이 한 쌍을 이루도록 만들어진 특이한 전으로 주연에 8엽小花연화문을 정연하게 배치하였다. 전의 중앙에 4엽小花문을 배치하였다. 또한 자방 주위에 연판대를 둘러 장식하고 외측에 보상 화엽을 배치하였다. 측면에는 사슴과 당초문을 표현하였다. 이 전은 망성리 와요지, 황룡사지, 안압지, 월성, 그리고 1999년 경주 대학교에서 발굴한 동천동 7B-L유적에서 출토되었다.



삽도12. 망성리 와요지 출토 보상화문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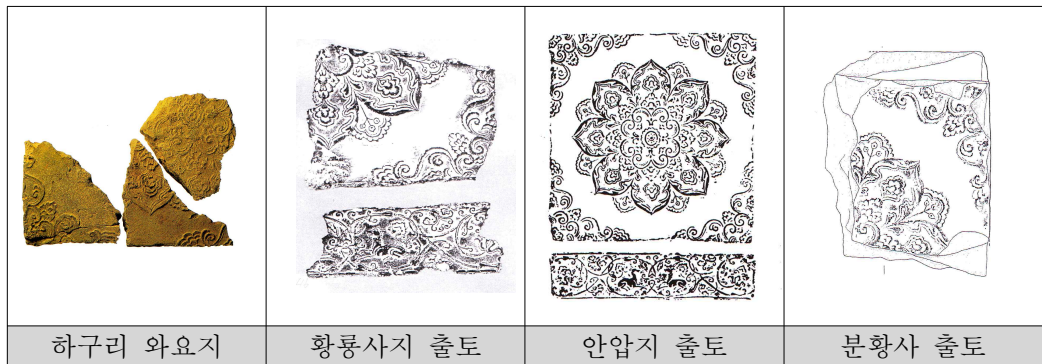
19) 박흥국, 1986, 『三國末~統一初期 新羅瓦博에 대한 一考察』,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 논문, p.52.

9) 하구리 와요지

경주시 현곡면 하구리의 다경 들녘에 위치하며 일명 다경 와요지라고 불리고 있다. 고신라부터 가마가 구축되어 통일신라 직후까지 활발한 조업 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가마의 형태는 지하식 굴가마로 추정된다. 이곳에서 많은 와전류가 출토되었으며 전은 무문전과 함께 연화문전 및 보상화문전이 포함되어 있다.²⁰⁾ 하구리 가마터 출토 전은 황룡사지, 분황사, 안압지, 월성, 등의 왕경 유적에서 출토되고 있다.

(1) 보상화문전

중앙에 보상화문무늬를 배치하고 네 모서리에 보상화문 분화를 돌렸으며 측면에는 사슴과 당초무늬를 시문하였다. 또한 안압지 출토 동범전의 경우는 ‘조로 2년명(調露二年名)’이라는 명문이 새겨진 전이 출토되어 전의 제작 연대(680년)를 확인할 수 있다(삽도13).



삽도13. 하구리 와요지 출토 보상화문전 비교.

20) 김성구, 『옛전돌』 빛깔있는 책들, 대원사, 1999, p.121.

(2) 연화문전



장방형으로 일부가 파손되었으며, 표면에 두개의 연화문 무늬가 시문되어 있다. 전의 두께는 6.3cm이며,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²¹⁾(삽도14)

삽도14. 하구리 와요지 출토 연화문전.

10) 동천동 681-1번지 일대 유적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박물관과 경주대학교 박물관에서 1997년부터 1999년 2월까지 발굴 조사한 유적이다. 발굴조사 결과 담장, 우물, 수혈, 가마, 건물지, 공방지, 도로 등 다양한 유구가 확인되었다.²²⁾ 출토 유물의 경우 토기류, 와전류, 금속 유물 등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 유적의 경우 보고서가 아직 발간되지 않았지만, 경주대학교 박물관 소장 유물을 실견할 수 있었다. 塼의 경우 무문전과 문양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문양전은 보상화문전만이 확인되었다(삽도15).



삽도15. 동천동 681-1번지 일대 유적 출토 문양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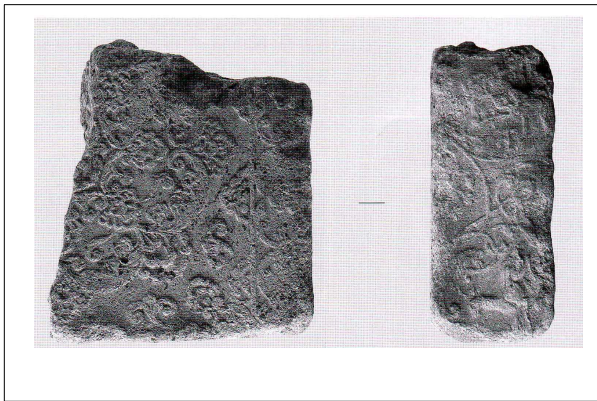
21) 김성구, 『옛전돌』 빛깔있는 책들, 대원사, 1999, p.61.

22)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경주대학교 박물관, 『경주시 동천동 7B/L내 도시유적 발굴조사 결과 보고서』, 1999년 4월 자료를 참조함.

11) 성건동 172-2번지유적

성림문화재연구원에 의해 2006년 8월 8일부터 8월 12일까지 발굴조사 되었으며 경주시 성건동 172-2번지 경주보훈지청청사건립부지로 ‘신라 왕경유적’ 내에 위치하고 있다.

발굴조사 결과, 통일신라시대 나말여초의 생활 유적으로 수혈2기, 고상건물지 1기, 구상유구 3기가 확인되었다. 출토 유물은 인화문토기와 청자를 비롯하여 토기류 15점, 연화문 수막새와 문양전(삼도16)을 비롯한 와전류 24점, 석기류 1점 등 총 40점이 출토되었다.



삼도16. 성건동 172-2번지 출토 문양전.²³⁾

12) 慶州 北門路 王京遺蹟(2003,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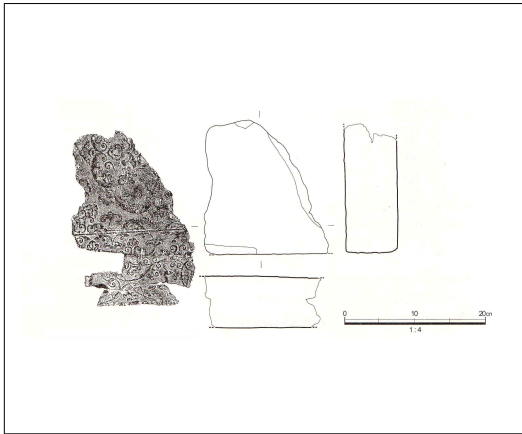
표7. 北門路 王京遺蹟 출토 문양전의 보고 현황 (2003, 2007)

문양전 2점	
보상화문전	연화문전
1점	1점

(1) 慶州 北門路 王京遺蹟(2003)

23) 성림문화재연구원, 『慶州 城乾洞 172-2番地 統一新羅時代 遺蹟』, 2008 자료를 참조함. 무문전은 지표수습 유물임.

북문로는 성동동 지역 북서편에 위치하며 조선시대 동서남북의 사대문이 남아 있었다고 전하는 경주읍성의 북편을 동서로 통하는 지역이다. 慶州 北門路 王京遺蹟은 성동동 일대에 자리 잡고 있으며,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의해 2000년 10월부터 2001년 8월까지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발굴조사 결과 도로유구와 각종 건물지, 수혈유구 등이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토기류, 와전류, 자기류, 토제품이 출토되었다. 그 중 와전류는 495점 중에서 전은 5점이 보고되었으며.²⁴⁾ 문양전의 경우 보상화문전 1점이 확인되었다. (삽도17)



삽도17. 경주 북문로 왕경유적 출토

삽도18. 경주 북문로 왕경유적 출토²⁵⁾

(2) 慶州 北門路 王京遺蹟Ⅱ(2007)

慶州 北門路 王京遺蹟Ⅱ은 경주시 서부동 2-83번지 일원에 자리 잡고 있으며 도시개발 사업 일환으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의해 조사되었다. 2004년 시굴조사와 함께 2005년 4월부터 8월까지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발굴조사 결과 도로유구 1개소, 수혈유구 26기, 우물 11기, 구상유구 2기, 석군 3개소, 석렬 1기, 적심 등이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크게 토기류, 와전류, 자기류가 있으며. 전의 경우 무문전 2점과 문양전 1점이(삽도18) 보고되었다.²⁶⁾

24) 韓國文化財保護財團, 『慶州 北門路 王京 遺蹟』 試・發掘 調査 報告書,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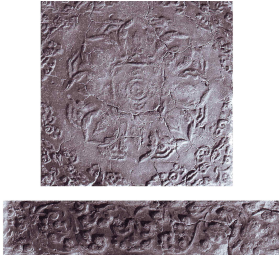
25) 韓國文化財保護財團, 『慶州 北門路 王京 遺蹟Ⅱ』 서부동 북문로 도로개설구간試・發掘 調査 報告書, 2007 자료를 인용함.

26) 韓國文化財保護財團, 『慶州 北門路 王京 遺蹟Ⅱ』 서부동 북문로 도로개설구간試・發掘 調査 報告書, 2007.

13) 사천왕사지

사천왕사는 통일신라시대의 대표적인 쌍탑 가람으로 이후 불교건축, 탑과 연구, 사찰구조 그리고 불교미술에 있어서 첫머리를 장식하는 유적이다. 사천왕사는 679년에 창건된 이래 전불시대 칠처가람의 한 곳으로 그 권위를 지녔고, 또한 성전사원으로 유지되면서 당대 중심 사찰의 하나로 자리하여 왔다. 그리고 신라가 당과 전쟁을 하던 대당항쟁기에는 이곳에서 명랑법사가 문두루비법을 행하여 당나라의 군대를 물리친 것으로 알려진 신라의 대표적인 호국 사찰이다.

사천왕사지는 국립경주문화재 연구소에 의해 2006년부터 현재까지 발굴 조사 중이며 많은 와전류와, 토기류, 자기류, 토제품 등이 출토되었다.²⁷⁾ 문양전의 경우 사천왕사지 출토 경주대학교 박물관 소장 전을 통해 문양전을 실견할 수 있었다(삽도19).

		
사천왕사지 출토	유창종 기증 기와	경주대학교박물관 소장

삽도19. 사천왕사지 출토 문양전.

27) 사천왕사지 자문위원회 자료 인용

14) 사천왕사지 북서편 가마터

사천왕사지 북서편 가마터는 사천왕사지 북서편 위치하고 있으며, 동해남부선 철도 북편 낭산 능선에 자리 잡고 있다. 2005년 경주대학교에서 실시한 지표조사를 통해 문양전과 기와편이 소수 수습되었다. 현재의 모습은 많이 파괴되어 그 모습만 대략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이다. 사천왕사지 북편 와요지에서 수습된 보상화문전은 사천왕사지에서 발견되고 있어 전의 생산지와 사용처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가마터 출토 보상화문전은 전면에 보상화문을 시문하고 있으며, 통일신라시대 보상화문전과 같은 형태로 시문되어 있으나 굵은 선과 중신부에는 방형 틀안에 4엽화문 등 전체적으로 둔화된 표현을 보이고 있으며, 다른 보상화문전에서 보이는 섬세하고 부드러운 문양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단면에서는 화엽 당초문이 확인된다(삽도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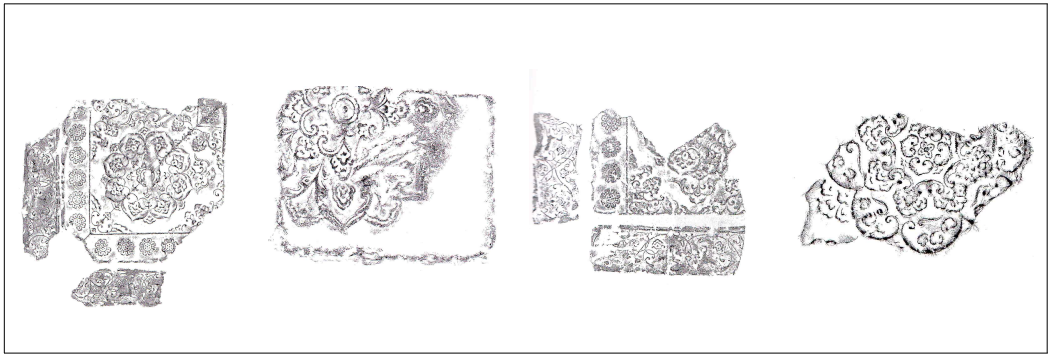


삽도20. 사천왕사지 북서편 가마터 출토 문양전.²⁸⁾

28) 경주대학교박물관에 소장 전을 인용함.

15) 계림남편

경주문화재연구소에 의해 월성 성벽 기저부쪽 해자 외곽지역, 즉 해자와 계림 사이 공간에 대한 유구의 잔존 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1차 조사(1984~1989년)가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부정형의 수혈 유구 및 주혈군 등이 다양하게 노출되었다. 그리고 지표에서 문양전이 4점 수습되었다.²⁹⁾



삽도21. 계림남편 출토 문양전.³⁰⁾

16) 경주 화곡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지구 내 유적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18-1번지일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성림문화재연구원에 의해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발굴 조사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공방지내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집중 폐기된 자연수로 2기가 노출되었다. 출토 유물은 토기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와·전류도 확인된다.

삽도22. 경주 화곡지구 출토 문양전³¹⁾

29)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月城核字 發掘報告書Ⅱ』, 2006.

30)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月城核字 發掘報告書Ⅱ』, 2006 자료를 인용함.

31) 『경주 화곡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지구내 유적』 지도위원회 자료를 인용함.

2. 기준 속성

본 연구에서는 전의 분류 중에서도 부전³²⁾으로 추정되는 전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부전 중에서도 문양이 시문된 전의 시문기법을 중심으로 문양전의 변천 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고대 전의 시문기법은 크게 두 종류로 분류 할 수 있다. 첫째는 땀을 사용하여 찍어 내는 방법과 두번째는 점토에 직접 조각하여 문양을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삽도23). 틀을 사용하여 시문하는 방법은 대량 생산이 용이하고 디자인적인 배치 구조를 전개하여 안정된 느낌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삽도24). 점토에 조각하는 두 번째 방법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나 정형적인 모습에서 탈피하여 각각의 전에 예술적인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① 예새 ³³⁾	② 인장 ³⁴⁾
 경주대 박물관 소장	 사천왕사지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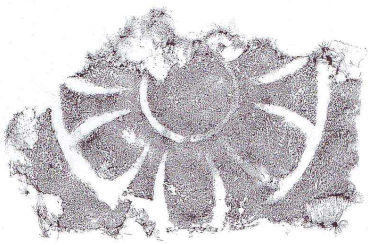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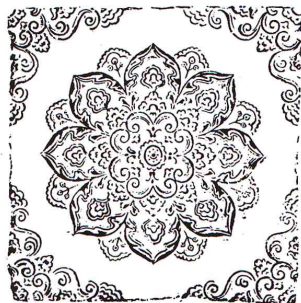
삽도23. 직접 시문하는 방법.

32) 부전이란, 지상 건축물의 실내·외 바닥이나 기단에 사용된 전을 말한다.

33) 경주대학교 박물관 소장 전돌.

34) 문화재청/국립중앙박물관, 『발굴에서 전시까지』에서 인용함.

틀을 사용하여 찍는 방법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수막새范³⁵⁾을 사용해서 문양을 장식하는 방법과 ② 塼范³⁶⁾을 사용해서 장식하는 부전이 있다.

① 수막새范	② 塼范
 월성 해자 출토	 안압지 출토

삼도24. 범의 종류 37)

3. 형식 분류

범을 사용하여 문양을 장식하는 시문기법을 통해 고신라에서 통일신라시대 순으로 형식 분류하고자 한다.

1). 수막새范으로 시문하는 방법

수막새의 범을 사용하여 전에 문양을 시문하는 방법은 고신라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 확인된다. 수막새의 문양을 통해 고신라시대로 비정되는 전의 가장 큰 특징은 첫째 문양적인 면에서 단판으로 주연에 연주문이 시문되어 있지 않은 전을 말한다. 반면 통일신라시대로 보는 전의 특징은 중판, 복판의 문양으로 주연에 연주문이 시문되어 있다.

35) 수막새범이란 수막새의 문양을 시문에 사용된 문양들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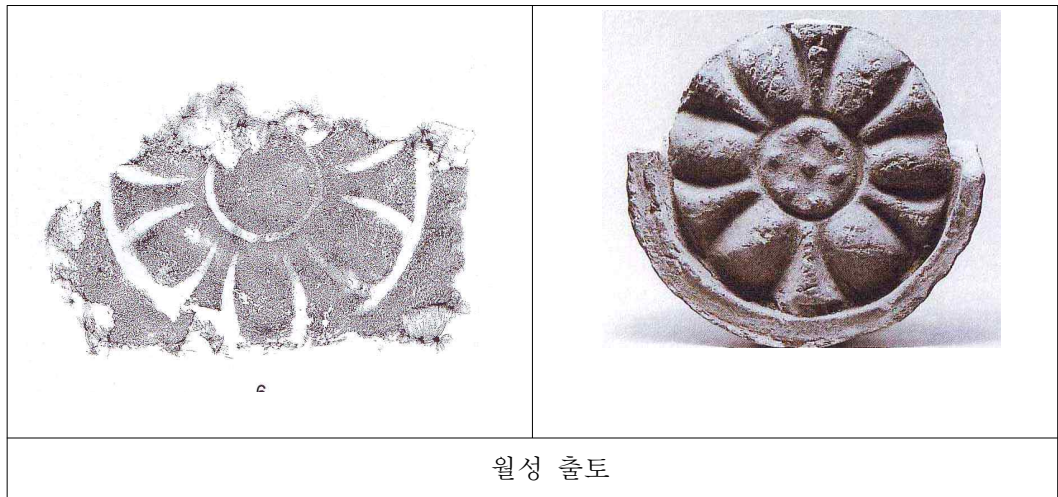
36) 부전범(塼范)이란? 문양전을 시문하기 위해 제작된 문양들을 말한다.

37)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月城核字』 發掘報告書Ⅱ, 2006과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雁鴨池』 발굴보고서를 인용함.

(1). 고신라

① 연화문전

월성 출토 문양전으로 고식 6엽 연화문전 편이다. 연화문전에 시문된 수막새의 드림徑은 15cm, 子房徑은 5.1cm이다. 이 문양전은 월성 출토 연화문 수막새의 문양과 일치하며, 수막새의 주연을 제외한 드림徑 15.1cm 과 子房徑 5.1cm으로 크기면에서도 일치한다(삽도25).



삽도25. 연화문전과 연화문 수막새 비교.³⁸⁾

② 연화문전

경주 출토 8엽의 단판 연화문 전으로 연화문을 복수로 배치하고 있다.

아래의 수막새는 경주 남산 장창곡 와요지 지표 조사 출토 단판 연화문전으로 경주 출토 전과 문양면에서 매우 흡사하다(삽도26).

38) 월성 출토 전은 국립경주연구소, 『月城塚字』 發掘報告書Ⅱ에서 인용하였으며, 월성 출토 수막새는 강우방, 『新羅瓦磚』, 국립경주박물관, 2000, p.25에서 인용함.



삽도26. 연화문전과 연화문 수막새 비교.

③ 연화문전

경주 하구리 가마터 출토 전으로 장방형의 전에 연화문을 복수로 배치하였다. 연화문 수막새는 황룡사 출토 수막새로 6엽의 화문이 장식되어 있다. 하구리 출토 전과 황룡사 출토 수막새는 문양적으로 매우 흡사하다(삽도27).



삽도27. 연화문전과 연화문 수막새 비교.³⁹⁾

39) 하구리 가마터 출토 전들은 김성구, 『옛전돌』, 대원사, p.65에서 인용하였으며, 황룡사 출토 수막새는 문화재연구소, 『황룡사』, 1984, p.171에서 인용함.

(2). 통일신라시대

삼국시대부터 수막새의 와범을 사용하여 문양전에 시문하는 방법은 통일신라시대 문양전에서도 확인된다. 통일신라시대 문양전의 특징은 문양적인 면에서 중판, 복판의 문양으로 주연에 연주문이 시문되어 있다.

삼국시대 문양전에 시문된 수막새 문양과 통일신라시대 전에 시문된 수막새 문양의 가장 큰 차이는 수막새 연주문의 유무이다. 이러한 이유로는 수막새범의 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삼국시대의 와범은 주연이 포함되지 않은 수막새범을 사용하였으나 통일신라시대 수막새범은 주연부가 포함되어 있어 전에 문양을 시문시에도 주연부가 표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삽도28. 수막새범. 40)

40) 강우방, 『新羅瓦磚』, 국립경주박물관, 2000, p.401에서 인용함.

① 연화문전

아래 문양전은 경주 화곡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 지구 내 유적에서 출토된 전으로 상면에 연화문 수막새 문양이 시문되어 있다. 수막새 문양은 망성리 와요지에서 ‘儀鳳四年皆土’ 銘 암키와와 세트 기와로 679年이라는 절대 연대를 알 수 있는 수막새이다.



경주 화곡지구 출토



안압지 출토

삽도29. 연화문전과 연화문 수막새 비교⁴¹⁾

② 연화문전

문양전에 시문된 수막새는 중앙에 자방을 넣고 그 내부에 1+9의 연자를 배치하였으며, 주연부 연자를 규칙적으로 배열한 중판 연화문 수막새이다. 동국대 박물관 소장 수막새는 전에 시문된 수막새 문양과 문양이 비슷하지만 자방 내부에 1+8의 연자를 배치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전에 시문된 수막새는 연자와 주연의 연자가 모두 음각이며 연잎은 양각으로 보여 독특하다 (삽도30).

41) 화곡지구 출토 전은 경주 화곡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 지구내 유적 지도위원회 자료에서 인용함.
망성리 와요지 출토 수막새는 강우방, 『新羅瓦塼』 국립경주박물관, 2000, p.46에서 인용함.



삽도30. 연화문전과 연화문수막새 비교.⁴²⁾

2). 塼范으로 시문하는 방법

(1). 삼국시대

삼국시대 백제와 고구려 지역의 묘전에서 보이는 문양전의 경우 범을 사용하여 제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부전에 범을 사용한 가장 이른 시기로 추정되는 전은 외리 출토 문양전이다.

충남 부여군 부여읍 외리로 서방 금강의 대안에 자리 잡고 있는 외리유적은 한 농부에 의해 1936년 3월 9일 나무를 뽑을 때 방형의 문양전이 발견되어 동년 4월 18일에서 5월 3일까지 약 15일 동안 발굴 조사하였다.⁴³⁾

완형의 문양전이 42점이나 출토되었는데 출토 당시 이 전들은 나지막한 대지와 보리밭 사이의 얇은 지표 하에 남북 방향으로 열을 지어 문양이나 배치에 질서가 없고 상하가 뒤집어 지기도 한 채로 발견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본래의 구조가 아닌 후세에 건물을 짓기 위해 개변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⁴⁴⁾

42) 동국대 소장 연화문 전들은 인터넷 이뮤지엄(www.emu)에서 인용하였으며, 연화문 수막새는 동국대학교박물관, 『동국대학교건학100주년기념 소장품도록, 2006, p.147에서 인용함. 동국대 소장 수막새는 강우방, 『新羅瓦塼』 국립경주박물관, 2000, p.46에서 인용함.

43) 有光教一, 「夫餘窺岩面に於ける文様塼出土の遺蹟と其の遺物」 『1936년도 古跡調査報告』, 1937, pp.65~73

44) 김창호, 「夫餘 外里 출토 文様塼의 연대」 『한국고대 불교고고학의 연구』, 서경문화사, 2007, p.160.

문양전의 연대에 관해서 有光教一은 8종의 문양전 가운데 연화문전에 10엽의 연화문을 반조형으로 크게 배치하고 있으며 연판내에 인동자엽이 새겨져 7세기 전반으로 추정하고 있다.⁴⁵⁾



삽도31. 부여 외리 출토 문양전.

또한 김창호는 와운문전의 안쪽에 있는 문양을 호박씨문⁴⁶⁾이라고 비정하였다. 이 호박씨문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는 그 예가 단 1점도 없으며 통일신라의 호박씨문의 기와와 검토하여 7세기로 보았다. 또한 귀형문전에 나오는 대금구를 백제와 신라의 형식과 비교하여 660~676년 사이로 백제 멸망 이후로 추정하고 있다.⁴⁷⁾

백제의 대금구는 교구의 변천, 역심엽형의 과판 변화 등에 의해 크게 I, II, III기로 편년된다.⁴⁸⁾ I기는 5세기 말에서 6세기로, II기는 6세기, III기는 6세기 말에서 7세기 중엽으로 편년된다.

외리 출토 대금구 문양은 장방형에 가운데가 비어있어 당식 대금구임을 쉽게 알 수가 있다. 그러나 대금구 문양중에서 원형의 수식은 당식 대금구에서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이보다 앞서는 시기인 누암리식 대금구에서 찾을 수 있다. 누암리식 대금구는 대개 백제에서는 660년 멸망 때 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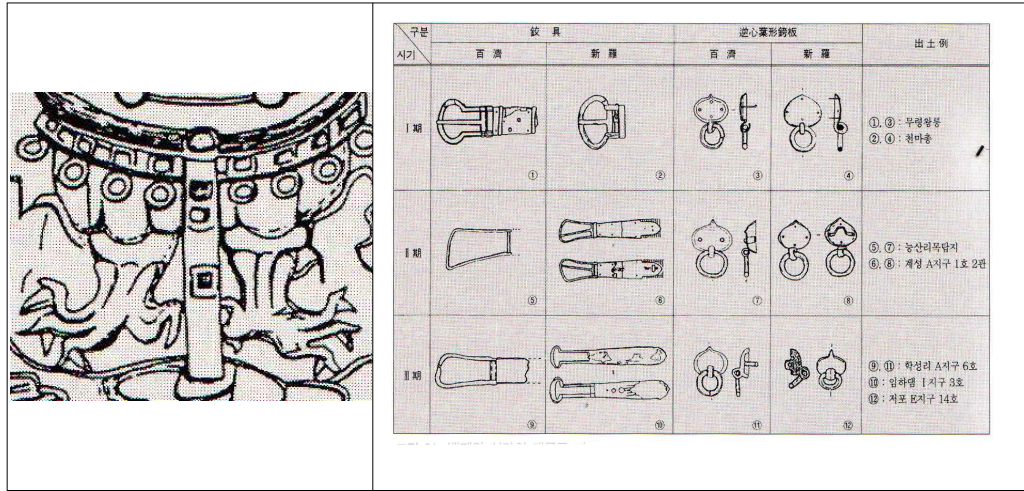
45) 有光教一, 앞의 논문, 1927.

46) 김창호, 「경주에서 출토된 후삼국 기와의 역사적 의미」 『경주문화』 제7호,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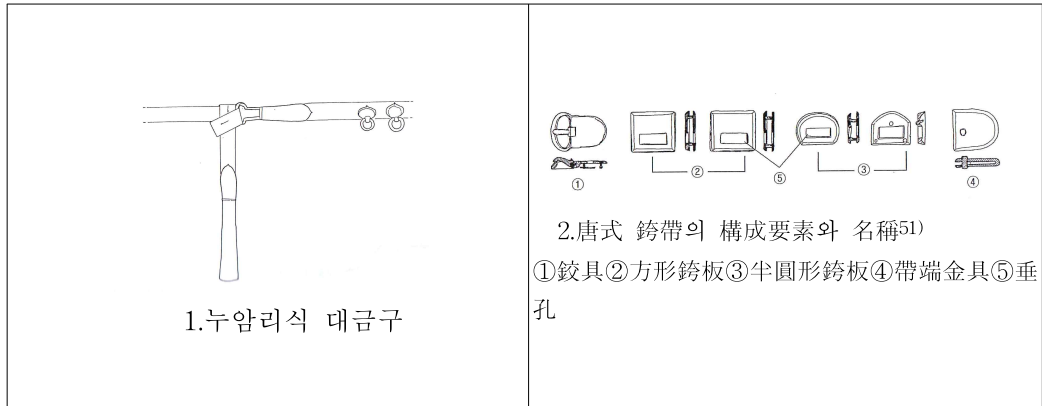
47) 김창호, 「夫餘 外里 출토 文樣塼의 연대」 『한국고대 불교고고학의 연구』, 서경문화사, 2007, p.173.

48) 이한상, 「5~7세기의 百濟의 帶金具」 『古代研究』 7, 1997.

알려져 있다.⁴⁹⁾



삽도32. 백제와 신라의 대금구 비교.⁵⁰⁾



삽도33. 대금구 모양 비교

외리 출토 전의 대금구 문양을 고려할 때 누암리식 대금구와 당식 대금구의 과도기적인 시기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김창호 선생의 편년

자료를 바탕으로 외리 출토 문양전은 백제 멸망 이후인 660년에서 676년으로 본다면, 연화문에 시문된 연주문의 문양의 시원도 백제 멸망 이후 일 것으로 추정된다.

49) 이한상, 「5~7세기의 百濟의 帶金具」 『古代研究』 7, 1997, p.159.

50) 김창호, 「夫餘 外里 출토 文樣傳의 연대」 『한국고대 불교고고학의 연구』, 서경문화사, 2007, p.170.

51) 이한상, 「韓半島의 唐式鍔帶의 그 歷史的 意義」 『영남고고학』 34, 2004, p.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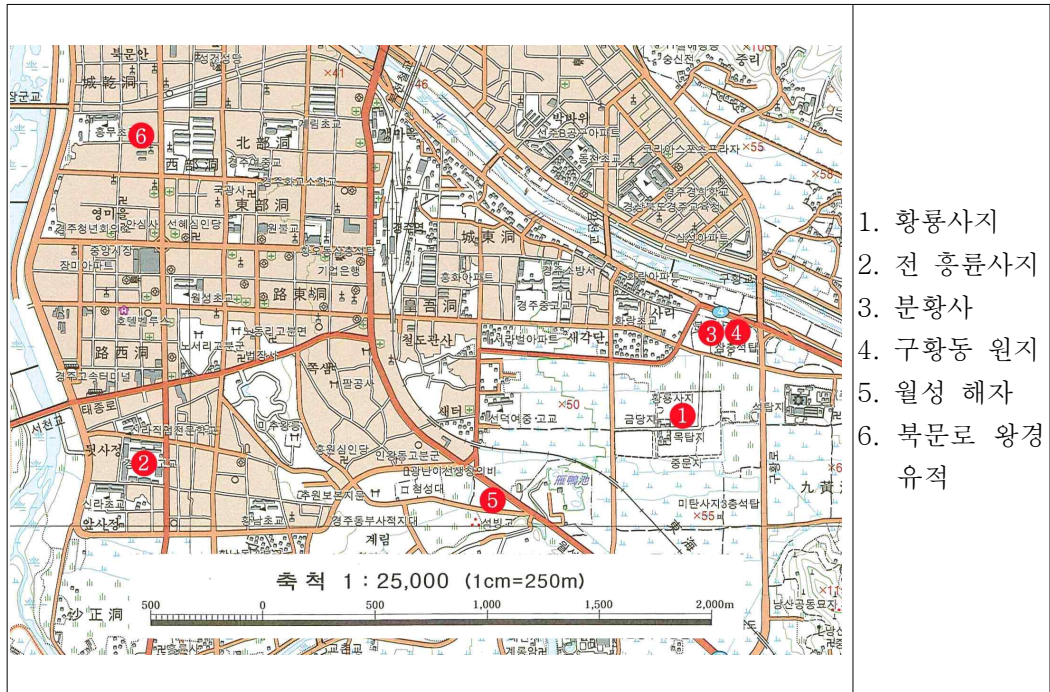
(2). 통일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는 궁성, 사찰 축조로 인해 범을 사용한 전이 본격적으로 제작·사용되었다. 통일신라시대 문양전은 상면 문양에 따라 크게 보상화문, 연화문, 당초문으로 나눌 수 있다. 당초문전의 경우 출토 수량이 적어 본 논문에서는 연화문전과 보상문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① 연화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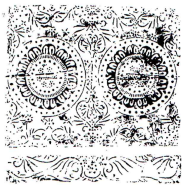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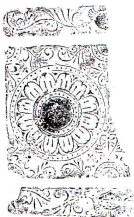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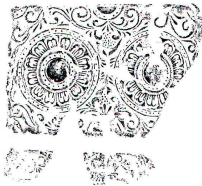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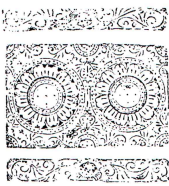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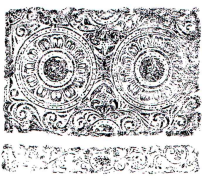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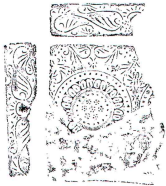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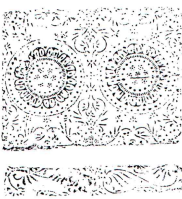
연화문전은 단판에서 중판, 복판 등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발전하게 된다. 삼국시대 문양전에 수막새범으로 문양을 장식하였던 기법에서 한 단계 발전하여 수막새의 장식 주변으로 당초문을 시문하여 전의 전 공간을 활용하는 기법으로 전범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전 측면에 문양을 시문함으로써 사용처에 따른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전을 제작하게 된다.

이러한 전범의 사용은 전의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문양적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되었다.



삽도34. 경주 출토 연화문전 현황

표8. 통일신라시대 연화문전 분류표

출토지	I	II	III
1.황룡사지			
2.전 흥륜사지 (경주공업고등학교)			
3.분 황사			
4.구 황동 원지			
5.월성 해자			
6.북문로왕경유적			

I 식: 이 형식의 전은 경주 출토, 황룡사, 구황동 원지, 분황사, 월성 등지에서 출토되고 있다. 전의 상면에 대칭적으로 연화문을 장식하였으며, 연화문 장식 주변으로 인동 초문이 시문되어 있다.

측면에서는 화문과 당초문을 시문하였는데 측면 장식은 상하로 시문되어 있다. 그리고 장측면의 장식이 노출되는 부분이라면 공간이 매우 좁은 곳에 배치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분황사에서 출토된 전과 구황동 원지에서 출토된 전은 한쪽 장측면의 중부에 와범 틀의 흔적으로 보이는 황선이 있어 동범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⁵²⁾

II 식: 이 형식의 전 문양의 형태는 I 식과 거의 비슷하다. 이 형식과 동형으로 보이는 것이 분황사에서 출토되었다. 전의 전면에는 연화문 장식과 연화문 장식 주변으로 반원형의 연주문, 인동문이 시문되어 있다. 단면에는 당초문과 화문이 시문되어 있다. I 식과 II 식은 문양의 형태는 비슷하지만 II 식은 단면의 문양이 한쪽 측면만 장식되어 있어 부전의 가장 외곽 부분에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III 식: 이 형식의 전돌로는 월성해자 전 흥륜사지에서 출토된 연화문전이 있는데 동형으로 보인다. 전의 상면에는 연화문 장식과 당초문이 장식되어 있다. 연화문 장식은 II 식과 매우 흡사하지만 자방의 크기가 더 확대되어 장식되어 있다. 단면의 장식도 I, II 식과 매우 흡사하지만 I, II 식에 비해 간결하게 표현되어 있다. 또한 III 식의 단면 ‘ㄱ’ 장식은 부전의 부설시 가장 모퉁이 부분에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52)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慶州 九黃洞 皇龍寺址展示館 建立敷地内 遺蹟』, 2008, p.655.

① -1 연화문전 크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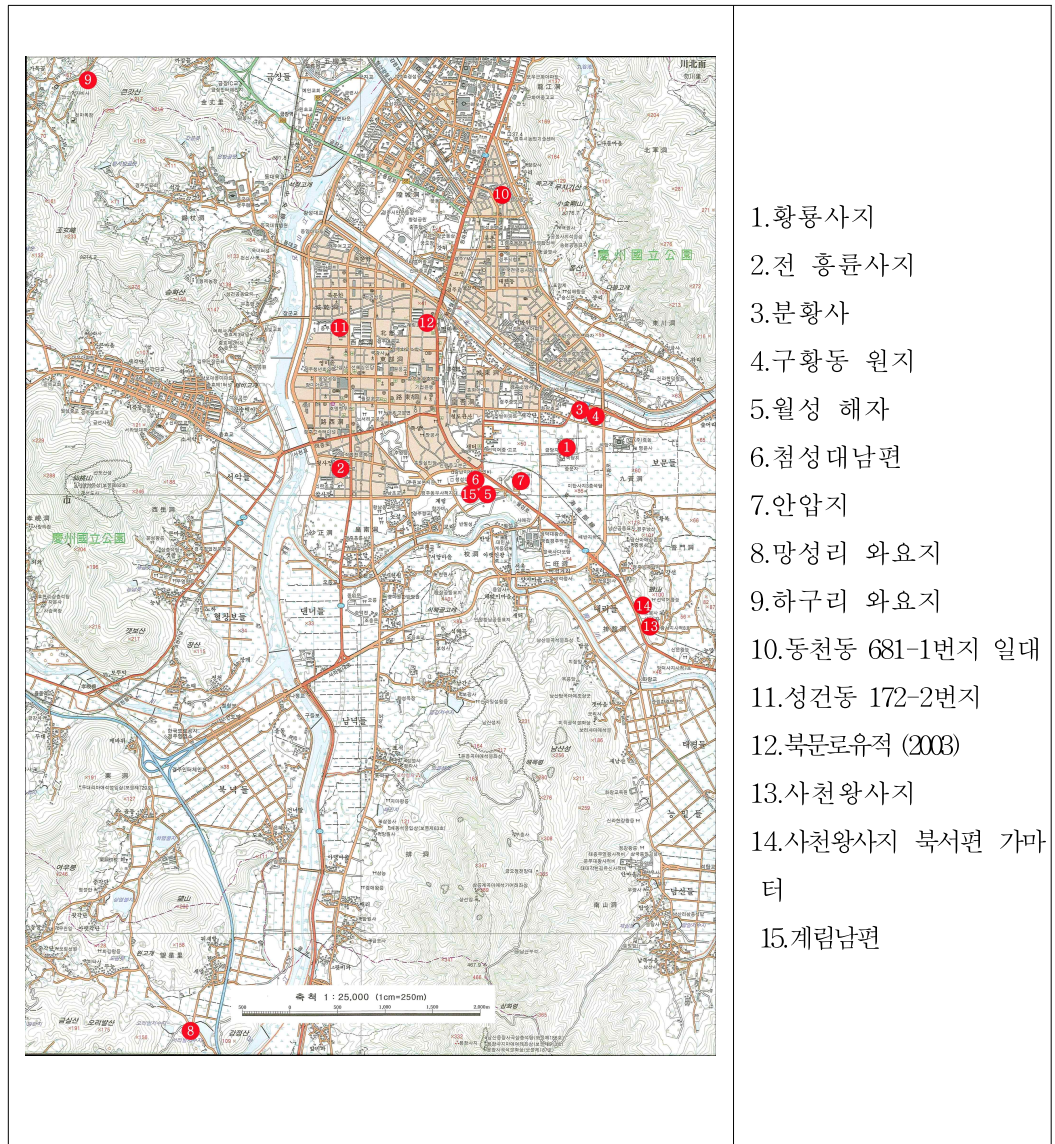
분석 대상은 보고서에 보고된 연화문전 완형을 기준으로 총 9점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연화문전은 가로 33.79cm, 세로 22.34cm, 두께 5.04cm 장방형의 연화문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9. 연화문전 크기 비교

출토지 (유물번호) \ 속성	문양	가로길이 (cm)	세로길이 (cm)	두께 (cm)	수량
분황사 (1030)	연화문전	31.8	22.1	5.4	1점
분황사 (1031)	연화문전	33.2	22.4	5.0	1점
분황사 (1032)	연화문전	32.6	22.1	5.6	1점
구황동원지 (772)	연화문전	35.0	22.2	5.0	1점
구황동원지 (405)	연화문전	34.1	22.5	4.5	1점
구황동원지 (1212)	연화문전	35.3	22.9	5.4	1점
구황동원지 (1213)	연화문전	34.3	22.2	4.6	1점
구황동원지 (1369)	연화문전	34.6	22.5	4.9	1점
구황동원지 (1608)	연화문전	33.2	22.2	5	1점
평균	연화문전	33.79	22.34	5.04	총9점

②. 보상화문전

보상화문전은 통일신라시대 문양전 중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는 문양으로 문양이 화려하고 섬세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보상화문전은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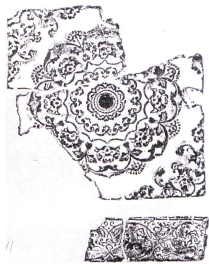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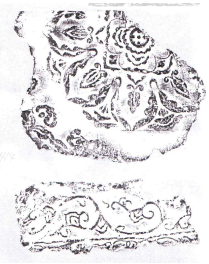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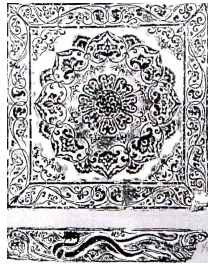


삼도35. 경주 출토 보상화문전 현황.

②-1. 보상화문전의 문양

보상화문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상면문양은 같지만 측면문양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측면 문양을 통해 분류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보상화문의 측면문양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쌍록당초문 둘째, 당초문 셋째, 용문당초문 넷째, 화문당초문으로 나눌 수 있다. 쌍록당초문 문양은 다양한 유적에서 확인되는 반면 당초문, 용문당초문, 화문당초문은 특정한 유적에서만 확인된다.

①쌍록당초문	②당초문	③용문당초문	④화문당초문
			

삽도36. 보상화문전 측면 문양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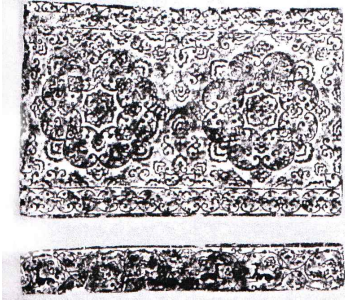
표10. 통일신라시대 보상화문전 측면 문양 비교

번 호	출토지명	보상화문전의 측면 문양			
		쌍록당초문	당초문	용문당초문	화문당초문
1	황룡사지	●	●	●	
2	전 홍륜사지	●			
3	분황사	●			
4	구황동 원지	●			
5	월성 해자	●			
6	경주 출토	●			
7	안압지	●			
8	망성리 와요지	●			
9	하구리 와요지	●			
10	동천동 681-1번지일대	●			
11	경주성건동 172-2번지	●			
12	경주 북문로 유적(2003)	●			
13	사천왕사지				●
14	사천왕사지 북서편 가마터				●

②-2. 보상화문전 크기

보상화문전은 크게 장방형의 보상화문전과 방형의 보상화문전으로 나눌 수 있다.

가. 장방형의 보상화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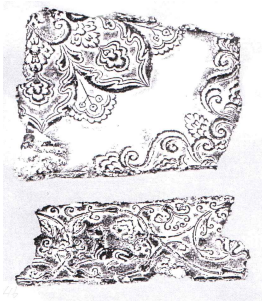
삽도37. 보상화문전.

황룡사지와 안압지에서 출토된 장방형의 부전이다. 상면에 두 개의 완성된 보상화문이 장식되어 있으며, 보상화문 장식 주변으로 당초문이 장식되어 있다. 이러한 시문 구조는 연화문전에서 확인된다. 전의 측면에는 사슴 문양과 당초문을 표현하였다.

표11. 장방형 보상화문전 크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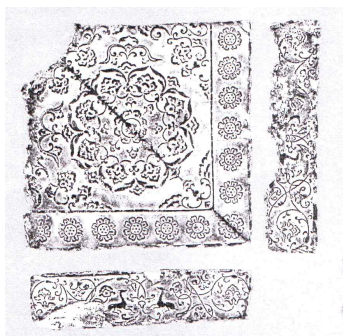
출토지 \ 속성	문양	가로길이 (cm)	세로길이 (cm)	두께 (cm)	수량
안압지	보상화문	45.0	32.0	6.5	38점

나. 정방형의 보상화문전



삽도38. 보상화문전.

경주 성건동 172-2번지, 경주 북문로 왕경유적 (2003), 황룡사, 분황사, 월성, 하구리 와요지 등에서 확인된 바 있는 보상화문전이다. 이 전은 중앙에 보상화무늬로 배치하고, 네 모서리에 보상화문 분화를 측면에는 사슴과 보상화당초무늬를 시문하였다. 황룡사 출토 전은 안압지 출토 ‘조로2년명 (調露二年名)..’ 명문이 새겨진 전과 동범전으로 전의 제작 연대를(680년) 확인할 수 있다.



삽도39. 보상화문전.

황룡사, 안압지, 월성, 망성리 와요지 등에서 확인되는 보상화문전이다. 이 전은 상면에 대각선으로 구획하여 4개의 전이 한 쌍을 이루도록 만들어졌다. 전 중앙에 4엽小花문이 배치된 자방 주위에 연판대를 돌려 장식하고 외측에 8엽의 보상화엽을 배치하였으며, 측면에는 사슴과 당초문을 표현하였다.

표12. 정방형 보상화문전 크기 분석

속성 출토지 (유물번호)	문양	가로길이 (cm)	세로길이 (cm)	두께 (cm)	수량 (점)
안압지 (425~427)	보상화문전	31.2	30.7	6.8	3점
안압지 (428~429)	보상화문전	30.7	30.4	7.2	2점
안압지 (433)	보상화문전	30.0	32.0	7.0	1점
안압지 (442~443)	보상화문전	31.5	32.2	7.7	2점
안압지 (453)	보상화문전	29.5	30.2	7.5	1점
평균	보상화문전	30.58	31.10	7.24	총9점

③ 통일신라시대 문양전의 크기 분석

전의 종류와 규격에 대한 문헌 자료로는 宋代의 『영조법식(營造法式)』⁵³⁾과 영조법식에 기록된 전의 규격을 그려 놓은 자료인 潘谷西/河建中の 『營造法式解讀』가 있다.

『營造法式解讀』에서는 전을 크게 방전(方塼), 조전(條塼), 압란전(壓蘭塼), 전정(塼碁), 우두전(牛頭塼), 주저전(走趨塼), 저조전(趨條塼), 진자전(鎭子塼) 등으로 총 8 종류로 나누고 있으며, 전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사용된 장소도 다양하다고 기술되어 있다.⁵⁴⁾

표13. 宋代 전의 사용처

종류	크기	사용처
방전	方20치, 두께 3치	11칸이상 전각(殿閣)
	方17치, 두께 2치8푼	7칸이상 전각(殿閣)
	方15치, 두께 2치7푼	5칸이상 전각(殿閣)
	方13치, 두께 2치5푼	전각(殿閣),관청,집,정자,사당
	方12치, 두께 2치	행랑,작은 정자와 사당,가옥 등 여러 곳
조전	길이 13치, 너비 6치5푼, 두께 2치5푼	섬돌
	길이 12치, 너비 6치, 두께 2치	행랑,작은 정자와 사당,가옥 등 여러 곳
압란전	길이 21치, 너비 11치, 두께 2치5푼	계단
우두전	사다리형(도면참조)	성벽
주저전	사다리형(도면참조)	성벽
저조전	사다리형(도면참조)	성벽

53) 『營造法式』은 북송대에 완성된 것으로 중국 고대 건축학 전서이다. 총 36권으로 瓦·塼의 제작 기술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54) 『營造法式』第三冊 卷 第十五 作制度 用塼 인용함.

방전			압란전
조전	전정	저조전	주저전
	진자전		우두전

삽도40. 宋代 전의 종류 및 크기.55)

통일신라시대 문양전의 경우 상면 문양에 따라 연화문전과 보상화문전으로 나눌 수 있으며 또한 모양에 따라 장방형과 정방형으로 나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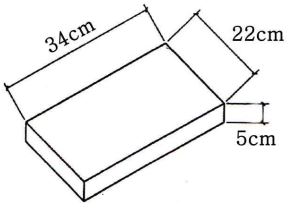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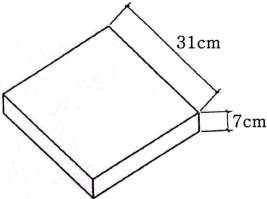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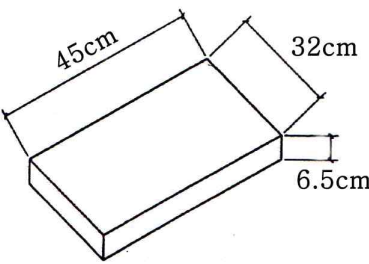
연화문전은 완형을 기준으로 장방형만이 확인되고 있으며 크기는 가로

55) 潘谷西/河建中의 『營造法式解讀』, 南京 東南大學出版社. 2005, pp. 209~211.

33.79cm, 세로 22.34cm, 두께 5.04cm이다.

보상화문전의 경우 가로 45.0cm, 세로 32.0cm, 두께 6.5cm의 장방형전과, 가로 30.58cm, 세로 31.10cm, 두께 7.24cm의 정방형 전이 모두 확인되고 있다.

통일신라시대 전의 크기를 宋代의 영조법식에 기록된 전의 크기별 사용처에 대입 시킬 수는 없지만, 기록을 통해 볼 때 다른 형태로 제작되는 전은 그 용도에 있어서도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연화문전		
보상화문전		

삽도41. 통일신라시대 문양전의 종류 및 크기.

VI. 경주 출토 문양전의 변천과정

지금까지 경주 출토 문양전의 각 속성을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시기에 따라 범의 종류, 전에 시문된 수막새 문양의 연주문 유무, 문양전의 상면 문양, 측면 문양이 다를 수 있었으며, 이를 종합해보면 고신라에서 통일신라시대까지 문양전의 변천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문양전에 수막새범을 사용하여 시문한 전은 고신라부터 출토되어 통일신라시대까지 이어지며 전범을 사용하여 시문한 문양전은 통일신라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어 수막새범과 공존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전범의 사용과 함께 문양전에 시문된 문양도 다양해지고 화려해진다.

표14. 범을 사용한 문양전의 시문기법 변천 추이

시대 속성	6세기	7세기	8세기	9세기	10세기
수막새범 시문					
전범 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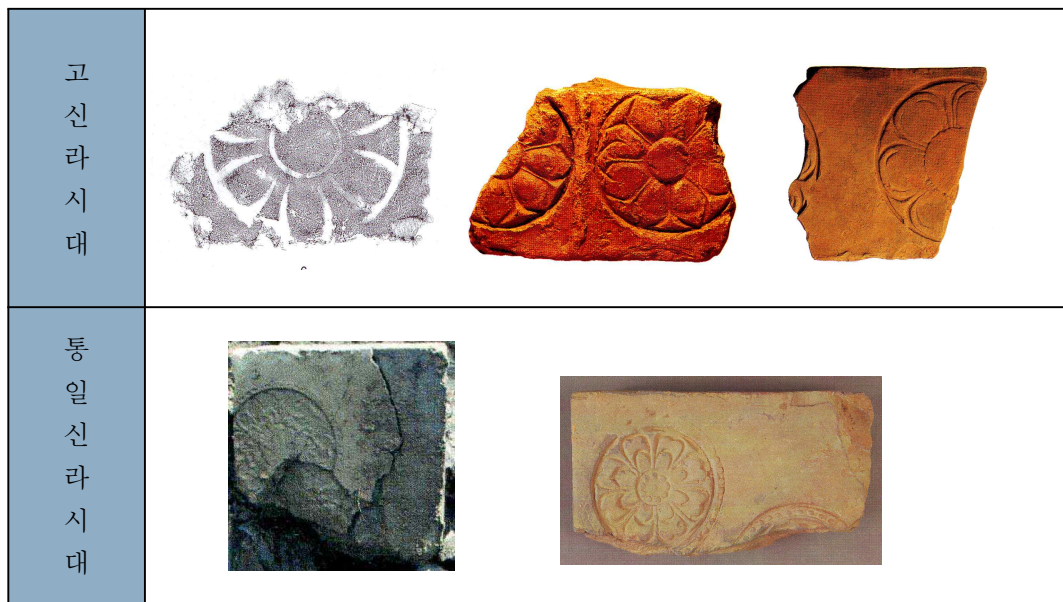
현재까지 출토된 문양전 중 수막새범을 사용한 시문 문양은 연화문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고신라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 연화문 장식의 가장 큰 특징은 수막새 주연부 장식의 유무일 것이다.

즉, 고신라로 추정되는 전에는 수막새 문양의 주연부에 연주문이 시문되어 있지 않으며, 통일신라시대 전으로 추정되는 전의 수막새 주연부에는 연주문이 시문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는 수막새의 제작기법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수막새 문양이 시문된 전과 이 전을 찍어 낸 수막새범이 같은

장소에서 출토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전과 수막새범은 동일한 장인 또는 집단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15. 수막새범을 사용한 문양전의 속성

시대 \ 속성	상면 문양		연주문 여부		수막새 동범 여부	
	연화문	기타	×	○	×	○
고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						



삽도42. 시대별 수막새범을 사용한 문양전의 종류.

고신라시대 문양전에 사용된 문양이 연화문 위주였다면 통일신라시대에는 보상화문이 주류를 이루었다. 또한 통일신라시대 문양전의 가장 큰 특징은 전

의 측면에 문양을 시문한다는 점이다. 전의 측면에 문양을 시문한다는 것은 기능적인 면과 더불어 장식적인 면도 고려하여 전을 제작한 것으로 기술상의 발전이라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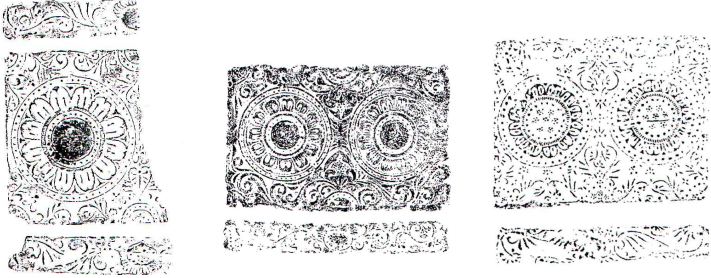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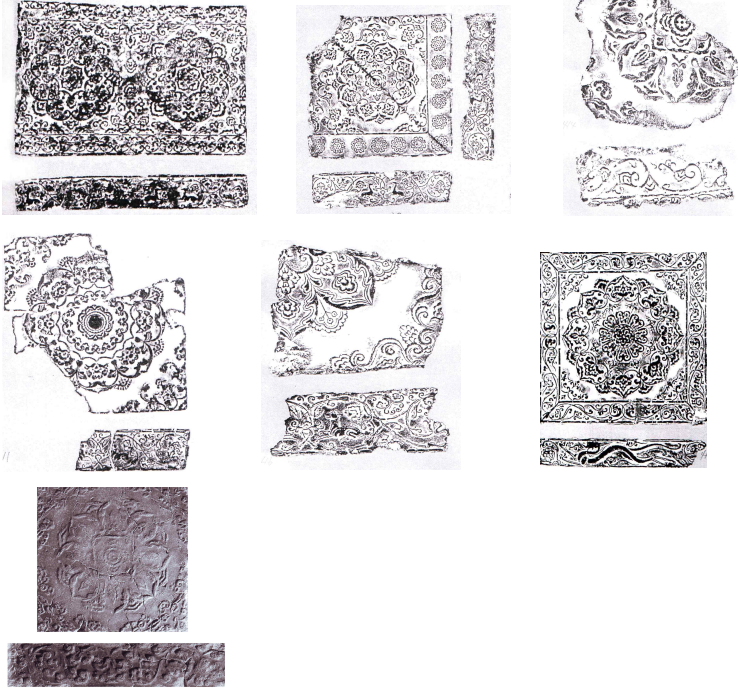
통일신라시대 연화문전은 동벌의 수막새를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삼국시대 수막새벌을 사용한 문양전과 차이를 보인다. 전벌을 사용한 전은 기존의 문양에서 새로이 문양을 창조한 것으로 추정되며, 수막새벌을 사용한 전에 비해 문양적으로 한 단계 발전한 형태로 보인다..

표16. 전벌을 사용한 문양전의 속성

속성 시대	상면문양		측면문양		수막새 동벌여부	
	연화문	보상 화문	×	○	×	○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표17. 통일신라시대 전범을 사용한 문양전의 상면 문양 비교

번호	출토지명	통일신라시대 부전의 상면 문양		
		연화문	보상화문	당초문
1	황룡사지	●	●	
2	전 홍륜사지	●	●	
3	분황사	●	●	
4	구황동 원지	●		
5	월성 해자	●	●	
6	첨성대 남편		●	
7	안압지		●	
8	망성리 가마터		●	
9	하구리 가마터		●	
10	동천동(경주대박물관)		●	
11	경주성건동 172-2번지		●	
12	경주 복문로 유적(2003)	●	●	
13	사천왕사지		●	
14	사천왕사지 북서편 가마터		●	
15	계림 남편		●	

통일신라시대	연화문전	
	보상화문전	

삽도43. 통일신라시대 문양전의 종류.

V. 결론

지상 건축물의 실내외 바닥이나 기단에 사용되는 전은 삼국시대부터 제작되기 시작하였으며 궁성, 사찰 등에서 상당량이 출토되고 있다. 또한 통일신라 시대에는 많은 궁성과 사찰이 축조되어 전이 대량으로 생산되었으며 문양도 다양해지고 화려해졌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도 주거 환경을 예술적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전을 연구함으로써 전의 특징과 변천을 규명하려고 시도하였다. 특히 경주 출토 문양전의 시문기법 연구하고, 각각의 속성을 분석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삼국시대 신라지역에서도 문양전이 제작되어 사용된 사실을 출토유물을 통해 실증하였다.

둘째, 경주 출토 부전의 상면 문양을 시문하는 방법은 크게 수막새범, 전범으로 나눌 수 있다. 수막새범은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 사용되었으며, 전범은 궁성, 사찰 축조로 전이 본격적으로 제작되어 사용되기 시작한 7세기 후반부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고신라시대의 문양 소재에서 가장 성행한 문양은 연화문이다. 그리고 통일신라시대부터는 전범의 사용과 함께 이전 시대인 고신라시대에서 보이지 않던 소재로서 보상화문이 시문된다. 따라서 보상화문전은 통일신라시대 문양전에만 나타나는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넷째, 통일신라시대 문양전에 나타난 문양은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의 기능과 연관하여 상면에 문양이 시문된 것은 실내의 기단, 바닥용, 인도에 부설되는 보도용으로 사용되었으며, 측면에 문양이 시문된 것은 건물 측면 모서리 부분이나 기단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연구에서 고대 문양전의 시문기법을 통해 각 속성을 분석하여 볼 때, 고대 문양전의 시문기법은 한국 전통화당의 시문기법과 매우 밀접한 관계

가 있으며, 통일신라시대에 전범의 사용으로 문양전은 문양적으로 독자적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하지만 통일신라시대의 문양전의 경우 문양이 매우 다양하여 세부적인 선후 관계가 고찰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문양전의 제작기법과 전범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는 정확한 절대 연대의 자료와 제작 기법을 통해 차후의 연구로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참고 문헌>

1. 사고

『林園十六志』

『天工開物』

『華城城役儀軌』

『營造法式』

『三國史記』

『三國遺事』

2. 보고서

국립중앙박물관, 『유창중 기증 기와·전돌』, 2002.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慶州 九黃洞 皇龍寺址展示館 建立敷地内 遺蹟』, 2008.

_____, 『芬黃寺 發掘報告書 I』, 2005.

_____, 『月城垓字 發掘報告書』, 2004.

_____, 『月城垓字 發掘報告書 II』, 2006.

_____, 『皇龍寺 發掘報告書 I』, 1984.

국립부여박물관, 『宮南池』, 2007.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박물관, 『석장사지』, 1994.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경주대학교 박물관, 『경주시 동천동 7B/L내 도시유적 발굴조사 결과 보고서』, 1999년 4월 자료.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雁鴨池』發掘報告書, 1978.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皇龍寺』發掘報告書, 1984.

위덕대학교박물관, 『경주 남산 장창곡 와요지 지표 조사 보고서』, 2001.

韓國文化財保護財團, 『慶州 北門路 王京 遺蹟』試·發掘 調査 報告書, 2003.

韓國文化財保護財團, 『慶州 北門路 王京 遺蹟II』서부동 북문로 도로개설구간 試·發掘 調査 報告書, 2007.

<日文>

朝鮮古蹟研究會, 『昭和十一年度古蹟報告書』, 昭和十一年.

朝鮮古蹟研究會, 『昭和十二年度古蹟報告書』, 昭和十二年.

朝鮮古蹟研究會, 『昭和十三年度古蹟報告書』, 昭和十三年.

3. 도록

국립공주박물관, 『百濟瓦當特別展』, 1988.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천년 궁성 신라 월성』, 2008.

국립중앙박물관, 『統一新羅』, 2003.

국립중앙박물관, 『유창종 기증 기와·전돌』, 2002.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 1993.

동국대학교박물관, 『동국대학교 건학100주년 소장품도록』, 2006.

문화관광부, 『기와·전돌』, 국립중앙박물관, 2002.

문화재청/국립중앙박물관, 『발굴에서 전시까지』, 2007.

百濟文化開發研究員 編, 『百濟瓦塼圖錄』, 1983.

성림문화재연구원, 『慶州城乾洞 172-2番地 統一新羅時代 遺跡』, 2008.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백제의 미술』, 2007.

3. 단행본

강우방, 『新羅瓦塼』, 국립경주 박물관, 2000.

김창호, 『한국 고대 불교고고학의 연구』, 서경문화사, 2007.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경연고고」 창간호, 2004.

김성구, 『옛기와』 빛깔있는 책들, 대원사, 1992.

김성구, 『옛전돌』 빛깔있는 책들, 대원사, 1999.

박흥국, 『한국의 전답 연구』, 학연문화사, 1998.

천득염, 『전답』 빛깔있는 책들, 대원사, 1998.

4. 논문

강우방, 「四天王寺址 出土 塑造四天王浮彫像의 復元的 考察」 『圓融과 調和』, 韓國古代彫刻史의 原理 I, 열화당, 1996.

김창호, 「경주에서 출토된 후삼국 기와의 역사적 의미」 『경주문화』 제7호, 2001.

_____, 「夫餘 外里 출토 文樣塼의 연대」 『한국고대 불교고고학의 연구』, 서경문화사, 2007.

김성구, 「多慶瓦窯址出 新羅瓦塼小考」 『美術資料』 제33호, 국립중앙박물관, 1983.

_____, 「統一新羅 瓦塼研究」 『考古美術』 162,163호, 한국미술사학회, 1984.

김유식, 「황룡사지 출토 신라기와의 研究成果의 課題」 『기와를 통해 본 미륵사와 황룡사』, 제2회 한국 기와 학회 학술 대회 발표문집, 한국 기와 학회, 2005.

김재원, 『호우충과 은령충』, 1948.

고유섭, 「朝鮮塔婆의 研究(1)」 『震檀學報』 제6권, 1936

_____, 「朝鮮塔婆의 研究(2)」 『震檀學報』 제10권, 1936

박홍국, 『三國末~統一初期 新羅瓦塼에 대한 一考察 -月星郡 內南面 望星里 瓦窯址 와 出土瓦塼을 중심으로-』, 1986.

_____, 「瓦塼資料를 통한 靈廟寺址와 興輪寺址의 位置 比定」 『新羅文化』, 제20권, 2002.

전홍필, 「慶州出土 三尊塼佛의 또 한例」 『考古美術』 第1卷, 1960.

전홍섭, 「四天王像塼의 1例」 『考古美術』 第2卷, 1961.

정영고, 「新羅의 塼塔: 統一新羅時代를 中心으로」 『월간중앙』 28, 1970.

조성윤, 「7世紀 前半엽 新羅 古式 蓮花文 수막새의 製作技法에 대하여」 『東西文物』, (財)東西 文化財研究院, 2007.

李南奭, 「百濟 蓮花文 瓦當의 一考察」 『古文化』, 第三十二輯, 韓國大學博物館協會, 1988.

이한상, 「5~7세기의 百濟의 帶金具」 『古代研究』 7, 1997.

_____, 「韓半島의 唐式鈐帶의 그 歷史的 意義」 『영남고고학』 34, 2004.

유홍도, 『통일신라시대 전돌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8.

黃恩信, 「三國時代 · 統一新羅時代 塼에 나타난 紋樣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71.

5. 국외 논문

高正龍, 「新羅文樣塼의 製作技法」 『立命館大學考古學論集』 立命館大學考古學論集刊行會, 2003.

平川南, 「墨書土器 とその字形」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1991. 戶田有二, 『백제의 수막새 기와 제작기법에 대하여(Ⅱ)』, 충남대학교 백제 연구소. 2004.

藤井和部, 「慶州古新羅古墳編年試案」 『神奈川考古』 6, 1979.

濱田耕作, 「新羅の 書箱甎」 『美術研究』 第17號, 1933.

井內功, 『朝鮮瓦塼圖報』 III, 1978.

潘谷西/河建中の 『營造法式解讀』, 南京 東南大學出版社. 2005.

6. 기타

동국대 캠퍼스·경주대학교 박물관, 『동천동 7B/L내 도시유적 발굴조사 제 3차 지도 위원회자료』, 1998, 8월.

사천왕사지 현장 안내 책자

성림문화재연구원, 『경주 화곡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 지구 내 유적 지도위원회 자료』, 2008.

A Study on Silla Design Brick
- Centering on Gyeongju Region -

Kim, Su - Hee

Department of Resources Studies
The Graduate School
Gyeongj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ang, bong won)

(Abstract)

Our country's brick was manufactured and used mainly from three kingdoms period, by being influenced and transmitted according to installation of China's Hansagun.

Through the period of Guknae castle in Goguryeo and the period of Hanseong in Baekje, the brick in the early days can be examined. What the brick came to enter the Korean peninsula for the first time can be said to be around 2nd~1st century when Hansagun was installed. Along with the spreading in the manufacturing technique of roof-end tile, it brought about a big change in our country's architectural culture and residential life.

The manufacturing technique in brick and the method of stamping design in three kingdoms period were progressed with similar stage to Korea's traditional roof-end tile. It was confirmed to be consistent in

several aspects. The technique at that time can be presumed through the excavated relics.

With entering the unified Silla period, the colorfully brick culture comes to be blossomed by absorbing the manufacturing technique of brick in Goguryeo and Baekj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explore its value and to examine about the process of a change in design brick, which is estimated to be pavement brick, by researching into brick, which had been used as the architectural sub-material along with roof-end tile in building architecture from the old times.

Especially through a research on Simun(施文:carving design) technique in design brick, which was excavated in Gyeongju, it analyzed and inquired into each attribute, thereby having been able to obtain the following decisions.

First, a fact that the design brick was manufactured and used even in Silla region during three kingdoms period was proved by the excavated relic.

Second, a method of stamping the upper design of the excavated brick in Gyeongju can be divided largely into the mould for roof-end tile and the mould for brick. The mould for roof-end tile had been used from three kingdoms period up to unified Silla period. The mould for brick is estimated to have been used from the late 7th century when the brick had been manufactured and started to be used in earnest due to building Silla 's royal capital and temple.

Third, the design, which had been prevailed the most in the design material during ancient Silla period, is lotus design. The floral medallion is carved design as the material that had not been seen in ancient Silla period when is the previous period, along with the use of the mould for brick from the unified Silla period. The brick of floral medallion can be seen to be characteristic that is indicated in the design brick of the unified Silla period.

The Simun(施文:carving design) technique in ancient design brick has very close relationship with Simun technique in Korea's traditional roof-end tile. Owing to the use of mould for brick in the unified Silla period, the design brick comes to be independently developed in light of design.